

동작구 교육현황 기초조사

책임연구원 전 구 훈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김 수 영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김 주 미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이 은 경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수료)



목 차

I 서 론	1
1. 조사 목적 및 필요성	1
2. 조사 내용 및 방법	2
II 양적연구 결과	3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6
3. 연구결과	8
제1절 학생	8
제2절 학부모	21
제3절 교사	39
III 질적연구 결과	49
1. 연구내용	51
2. 연구방법	51
3. 연구결과	53
제1절 변화내용	54
제2절 선행요건	64
제3절 대안마련	68

IV 결 론	71
1. 양적연구 결과	73
2. 질적연구 결과	76
3. 연구결과 제언	78
참고문헌	80
부 록	81

표 목차

<표 2-1> 연구대상별 주요 연구내용	5	<표 2-26> 현재 거주지	21
<표 2-2> 조사대상과 선정 기준	6	<표 2-27>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22
<표 2-3> 대상별 양적조사 인원	6	<표 2-28> 자녀의 학년	22
<표 2-4> 성별에 따른 학생수	8	<표 2-29> 자녀의 학업성적	23
<표 2-5> 학년에 따른 학생수	9	<표 2-30>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3
<표 2-6> 현재 거주지	9	<표 2-31> 가정에서 경제활동 하는 사람	23
<표 2-7>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9	<표 2-32> 자녀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정도	24
<표 2-8> 본인의 학업성적	10	<표 2-33> 자녀학교 생활지도 만족도	25
<표 2-9>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10	<표 2-34> 자녀학교에 대한 만족도	25
<표 2-10> 수업 활성화 정도	11	<표 2-35> 1년간 자녀학교 방문횟수	26
<표 2-11>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정도	11	<표 2-36> 자녀학교 방문이유	26
<표 2-12> 학교생활지도 만족도	12	<표 2-37>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정도	27
<표 2-13> 학교만족도	12	<표 2-38>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내용	27
<표 2-14> 지역공동체 의식	13	<표 2-39> 학부모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	28
<표 2-15> 삶의 만족도	13	<표 2-40>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학교교육 발전에 도움되는지 여부	28
<표 2-16> 자신의 강점(자원관련 요인)	14	<표 2-41> 학교교육에서 학부모 참여가 필요한 영역	29
<표 2-17>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	14	<표 2-42> 동작구 교육에 대한 만족도	29
<표 2-18> 학년별 수업 및 수업 외 활동에 대한 인식	16	<표 2-43> 교육문제로 인한 이사 고려 유무	29
<표 2-19> 학년별 생활지도와 학교만족도	17	<표 2-44> 이사를 고려한 구체적 이유	30
<표 2-20> 학년별 지역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 강점	18	<표 2-45> 지역공동체 의식	30
<표 2-21> 경제상황별 수업 및 수업 외 활동에 대한 인식	19	<표 2-46>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정도	31
<표 2-22> 경제상황별 생활지도와 학교만족도	19	<표 2-47>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	31
<표 2-23> 경제상황별 지역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 강점	20	<표 2-48> 자녀의 방과후학교 이용여부	32
<표 2-24> 성별에 따른 학부모수	21	<표 2-49>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33
<표 2-25> 학부모 평균연령과 연령별 학부모수	21	<표 2-50>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33
		<표 2-51> 자녀학년별 창의적 체험활동과 생활지도 및 학교만족도	34
		<표 2-52> 자녀학년별 학교만족도, 자녀성적, 학교방문 횟수	35
		<표 2-53> 자녀학년별 동작구 교육만족도와 지역공동체 의식	36
		<표 2-54> 경제상황별 창의적 체험활동과 생활지도 및 학교만족도	37

<표 2-55> 경제상황별 자녀의 학업성적과 자녀학교 방문횟수	38
<표 2-56> 경제상황별 동작구 교육만족도와 지역공동체 의식	38
<표 2-57> 성별에 따른 교사수	39
<표 2-58> 교사 연령	39
<표 2-59> 교직 경력	40
<표 2-60> 재직 중인 학교급	40
<표 2-61> 직위	40
<표 2-62> 수업 활성화 정도	41
<표 2-63>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정도	41
<표 2-64> 학교생활지도 만족도	42
<표 2-65> 학교만족도	42
<표 2-66>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정도	43
<표 2-67>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	43
<표 2-68> 학교 급별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화	44
<표 2-69> 학교 급별 생활지도와 학교만족도	45
<표 2-70> 학교 급별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	45
<표 2-71> 교사경력별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46
<표 2-72> 교사경력별 생활지도와 학교만족도	46
<표 2-73> 교사경력별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	47
<표 3-1> 학생, 학부모 참여자	52
<표 3-2> 학교, 지역사회 참여자	52

그림 목차

<그림 2-1>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	15
<그림 2-2>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	32
<그림 4-1>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한 실천적 모델	30

연구 요약

본 연구는 동작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로, 동작구 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양적연구는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고, 동작구 관내 22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1,242명과 949명의 학부모, 410명의 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질적연구는 학생, 학부모, 학교관계자인 행정가 및 교사, 지역사회 기관장 및 실무자 등 6개 그룹으로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4명이 참여하였다.

양적조사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 '다양한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을 요구하였다. 학년과 경제상황별로 집단 간 평균비교분석을 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상황을 좋지 않게 인식할수록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성적, 삶의 만족도, 지역공동체 의식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에 대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 '학생들의 미래역량 개발', '공교육혁신'을 요구하였다. 이들 학부모집단을 자녀의 학년과 경제 상황별로 나누어 평균비교분석을 한 결과, 자녀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자녀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자녀의 학업성적도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의 경우,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 '학교문화개선', '상담, 복지, 진로에 관한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을 학교 급별, 경력별로 집단을 나누어 평균을 비교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보다 자신의 학교교육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정도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보다 점수가 높았고, 경력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질적조사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기대되는 변화가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로 학교차원에서 외형적인 시설 즉 환경의 변화와 함께 수업의 변화, 수업 외의 다양한 체험활동, 동아리 등의 다양한 활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업방식의 변화, 자유학기제 도입, 체계적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 자발성, 행정업무 간소화 등도 요구하였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연계, 홍보의 확대, 검증시스템 도입, 학생이 중심이 되어 지원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요소로 생각의 전환, 소통, 만남의 장 확대, 구심체의 역할에 대해 요구하였다. 교육이라는 큰 틀 아래 학교,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또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원하고 있었다.

장기적인 교육발전의 대안으로 자생력 있는 사업, 사람중심의 사업, 교육 중심의 생태환경으로 조성, 동작구만의 특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협력적인 모형을 강조하였다.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기존에 심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과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향후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동작구의 교육발전을 위해 숙고해야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교 교육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학생이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지역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면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방동, 영등포동을 중심으로, 하나는 상도동, 사당동, 흑석동을 중심으로 2개 지역으로 나누어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단위로 교육과정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중심이 되는 학교중심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중심형, 콘텐츠형이나 세대공감형, 교육복지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통합형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 동작구만의 다양한 문화, 교육 콘텐츠를 구상하여 특색화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멘토사업, 교육복지센터 등의 설치를 통하여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가정, 지역사회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심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동작구 교육발전과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사업의 전략을 세워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는 기초선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심도있는 연구와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I

서론

I. 서론

1. 조사목적 및 필요성

동작구 용역사업으로 운영된 동작구 교육현황 기초조사는 동작구내 학생, 학부모, 교사, 행정가, 지역사회의 교육욕구를 파악하고 향후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작구는 2015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우선형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혁신형으로 선정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작혁신교육의 비전인 누구나 꿈꾸고 마을과 함께 꿈을 키우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육 주체들의 실질적인 욕구와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동작구는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면적에 비해 인구의 밀집도가 높다.¹⁾ 그러나 지역 개발의 불균형으로 교육환경의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고려해 볼 정도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그러나 동작구는 송실대, 중앙대, 총신대 등 3개 대학과 100여 개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노량진학원가가 위치한 곳으로 교육자원과 열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될 것이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동작구내 교육주체를 대상을 양적조사(설문지)와 질적조사(인터뷰)를 통하여 욕구를 파악하였다. 양적연구는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고, 동작구 관내 22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1,242명과 949명의 학부모, 410명의 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질적연구는 학생, 학부모, 학교관계자인 행정가 및 교사, 지역사회기관장 및 실무자 등 6개 그룹으로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1) 면적 : 16.35km(서울시 2.7%), 인구 : 410,815명(서울시 3.95%), 세대 : 172,700(서울시 4.1%)

양적조사의 경우 학교 선정은 동작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특성과 학교특성(일반학교, 중점학교, 연계학교 등)을 고려하여 전 지역의 학교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9개 초등학교, 9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 학생은 선정된 학교별로 2개 학급이 무작위로 조사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4학년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전체 분석에 포함된 학생은 22개교, 44학급, 1,242명이다.

학부모의 경우, 설문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949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교사도 설문에 참여하는 학교의 교원으로 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교장과 교감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전체 분석에 포함된 교사는 22개교, 410명이다.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교육 참여경험, 동작구 교육 및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었으며, 기술통계와 평균차 검정을 통해 조사하였다.

질적 연구는 학생, 학부모, 학교관계자인 행정가 및 교사, 지역사회 기관장 및 실무자 등 6개 그룹으로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4명이 참여하였다. 학생의 경우는 설문에 참여한 해당학교 해당 반 교사의 추천 및 지역의 추천으로 초등학생 3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으로 총 6명이다. 학부모는 교사 추천으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다양한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학교관계자는 행정가인 교감, 교장과 초등, 중등, 고등 각각 1명씩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지역사회기관은 동작구청,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고 동작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 교육, 마을사업 관련 지역사회기관장 및 실무자 총 6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그룹으로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개별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한 후 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연구자가 여러 번 읽고 줄 단위로 코딩을 하면서 범주화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주제를 도출해 냈다.

I

양적연구 결과

II. 양적연구 결과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로, 동작구 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동작구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 및 발전방향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작구 교육정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연구대상별 주요 연구내용

영역	학생	학부모	교사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학교급, 거주지, 거주 연수, 경제상황		성별, 연령, 근무 연수, 직위
	성적, 삶의 만족도, 강점	경제활동여부, 자녀의 성적	
2.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환경	시설에 대한 만족도	시설에 대한 만족도
	교육내용	수업, 수업 외 활동	수업 외 활동
	기타	생활지도, 학교만족도	생활지도, 학교만족도
3. 학교교육 참여경험	-	참여경험, 활성화 방안	-
4. 동작구 교육 및 지역사회 공동체 인식	-	동작구 교육만족도 이사고려여부	-
	지역공동체의식	지역공동체의식	-
5. 혁신교육지구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관련 욕구	혁신교육지구사업 이해정도 혁신교육지구사업 발전방향	혁신교육지구사업 이해정도 혁신교육지구사업 발전방향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동작구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이다. 학교 선정은 동작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특성과 학교특성(일반학교, 중

점학교, 연계학교 등)을 고려하여 전 지역의 학교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9개 초등학교, 9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 학생은 선정된 학교별로 2개 학급이 무작위로 조사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4학년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전체 분석에 포함된 학생은 22개교, 44학급, 1,242명이다.

학부모의 경우, 설문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949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교사도 설문에 참여하는 학교의 교원으로 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교장과 교감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전체 분석에 포함된 교사는 22개교, 410명이다.

[표 2-2] 조사대상과 선정 기준

조사대상	선정기준
학생	동작구 내 9개 초등학교, 9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의 2개 학급 학생 (단, 초등학교의 경우 4학년 이상) ※ 학급은 무작위로 선정함 ※ 학교선정은 지역특성과 학교특성(일반학교, 중점학교, 연계학교 등)을 고려하여 전 지역의 학교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22개교를 선정함
학부모	설문참여 학생의 학부모 전체
교사	설문참여 학교의 교원 20명 (교장, 교감 필수 포함)

[표 2-3] 대상별 양적조사 인원

구분		빈도(명)	비율(%)
학생	초	470	37.9
	중	516	41.5
	고	256	20.6
	소계	1,242	100
학부모	초	382	40.3
	중	389	41.0
	고	178	18.7
	소계	949	100
교사	초	179	43.6
	중	152	37.1
	고	79	19.3
	소계	410	100
합계		2,601	100

2) 조사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학생의 경우 성별, 학년, 거주지, 거주기간, 성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삶의 만족도와 강점 등을 질문하였고, 학부모의 경우 성별, 나이, 거주지, 거주기간,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교사의 경우, 성별, 나이, 근무경력 등을 질문하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7점 척도, 5개 문항으로 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강점은 자원의 접근과 활용 수준을 파악하는 5문항(자원에 대한 인지, 사회적 지지, 관심있는 활동과 사회적 교류, 자원 활용도, 정보 활용도)을 4점 척도로 파악하는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삶의 만족도는 .90, 강점은 .89로 나타났다.

(2)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에 대한 인식은 수업, 수업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잘 활성화된 것을 의미)로 이루어진 4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의 생활지도와 학교 전반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5점 척도,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수업 활성화 정도의 경우 학생은 .85, 교사는 .90로 나타났다.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정도의 경우 학생 .89, 학부모 .89, 교사 .84로 나타났다.

(3) 학교교육 참여경험

학부모에게 학교교육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와 어떠한 영역에 학부모 참여가 필요한지, 그러한 참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방문 횟수와 이유, 학부모단체 활동 참여빈도와 내용, 학부모단체 활동 활성화방안, 학부모 참여가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학부모 참여가 필요한 영역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4) 동작구 교육 및 지역사회 공동체 인식

동작구에 대한 교육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만족도와 이사를 고려한 적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와 신뢰정도, 소속감과 같은 지역 공동체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5점 척도,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학생은 .88, 학부모는 .80으로 나타났다.

(5) 혁신교육지구 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와 발전방향 등을 탐색하기 위해 혁신교육지구사업 이해정도, 만족스런 학교교육 또는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중

요한 것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 16일에 설문지와 설문지침, 조사대상자에 대한 답례품을 우편택배를 통해 발송하였고,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 사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조사가 완료된 직후 응답된 설문지를 다시 연구팀으로 발송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설문지의 관리와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에 대한 기술통계, 평균 차 검정 등이 수행되었다. 조사에 사용된 척도들에 대한 내적일치도(신뢰도, Cronbach's Alpha)를 살펴기 위해 별도의 신뢰도 검사(Reliability Analysis)도 병행하였다.

3. 연구결과

제1절 학생

1) 기초분석 결과

(1)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652명(54.2%), 여학생이 590(47.5%)으로 남학생이 약간 많았다.

[표 2-4] 성별에 따른 학생수

성별	빈도(명)	비율(%)
남자	652	52.5
여자	590	47.5
합계	1242	100.0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470명(37.8%), 중학생이 516명(41.5%), 고등학생이 256명(20.6%)였다.

[표 2-5] 학년에 따른 학생수

교육과정	학년	빈도(명)	비율(%)
초등	초등학교 4학년	233	18.8
	초등학교 5학년	132	10.6
	초등학교 6학년	105	8.5
	소계	(470)	(37.8)
중등	중학교 1학년	266	21.4
	중학교 2학년	230	18.5
	중학교 3학년	20	1.6
	소계	(516)	(41.5)
고등	고등학교 1학년	125	10.1
	고등학교 2학년	129	10.4
	고등학교 3학년	2	0.2
	소계	(256)	(20.6)
합계		1,242	100

현재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학생의 89.4%가 동작구에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현 거주지에서 얼마동안 살았는지에 대해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1.1%였고, 10년 이상도 45.8%나 되었다.

[표 2-6]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	빈도(명)	비율(%)
동작구	1108	89.4
동작구 외	132	10.6
합계	1240	100

[표 2-7]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거주기간	빈도(명)	비율(%)
1년 미만	90	7.3
1년~3년 미만	134	10.8
3년~5년 미만	134	10.8
5년~10년 미만	313	25.3
10년 이상	567	45.8
합계	1238	100

학생들에게 현재 자신의 학교성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0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를 1~4점은 못함, 5~7점은 중간, 8점 이상은 잘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2-8]이다. 1,028명(83.3%)의 대다수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중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205명(16.7%)의 학생만이 '중간'보다 낮다고 응답하였다.

[표 2-8] 본인의 학업성적

본인의 학업성적	빈도(명)	비율(%)
못함	205	16.7
중간	549	44.6
잘함	476	38.7
합계 (평균: 6.58, SD: 2.173)	1,230	100

주: 10점 척도로 1~4점은 하, 5~7점은 중, 8점 이상은 상으로 처리함

자기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지 10점 척도(1점은 하, 10점은 상)로 설문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인 1099명(90.2%)이 '중' 이상에 응답하였고, 120명(9.8%)의 학생이 4점 이하인 '하' 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나쁘지 않게 인식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상황인식에 대한 평균점수는 6.62였다.

[표 2-9]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경제상황	빈도(명)	비율(%)
하	120	9.8
중	707	58.0
상	392	32.2
합계 (평균: 6.62, SD: 1.946)	1219	100

주: 10점 척도로 1~4점은 하, 5~7점은 중, 8점 이상은 상으로 처리함

[표 10]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인 학교의 수업이 얼마나 학생 활동 중심적이며,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높은지 등을 물어본 결과, 평균 3.90점으로 '약간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문항을 살펴보면, '우리 학교의 수업분위기는 활기차다'가 4.23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 학교는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많다'는 3.89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이 많다'는 3.71,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3.7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0] 수업 활성화 정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우리 학교의 수업분위기는 활기차다	4.23	.871
2. 우리 학교는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많다	3.89	.926
3.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이 많다	3.71	1.015
4.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3.78	1.048
척도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852)	3.90	.808

주: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업 활성화를 의미함

수업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방과 후 학교나 동아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구체적 문항을 살펴보면 '우리 학교는 축제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고려한 방과후 학교가 잘 운영 된다'는 문항에 대한 점수가 좀더 높은 반면, '우리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진다'와 '우리 학교는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의 점수는 약간 낮았다.

[표 2-11]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정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우리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진다	3.93	.935
2.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고려한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 된다	4.06	.985
3. 우리 학교는 축제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	4.11	.955
4. 우리 학교는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3.96	.942
5. 우리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수학여행, 체험활동, 캠프)이 잘 이루어진다	4.00	1.018
척도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890)	4.01	.805

주: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의미함

학교의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물어본 결과, 평균 3.90점으로 '약간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문항별로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상담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진다'가 3.97로 가장 높았고, '우리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생활지도를 한다'가 3.95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표 2-12] 학교생활지도 만족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우리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생활지도를 한다	3.95	1.002
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상담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진다	3.97	.937
3. 우리 학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3.84	.975
4.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문제상황이 생겼을 때 학생과 소통하며 해결하려고 한다	3.84	1.051
5.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과 왕따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	3.90	1.084
척도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905)	3.90	.860

주: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교생활지도 만족도를 의미함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3.89로 '약간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는 학교생활을 재미있어 한다'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학교의 시설은 안전하다'가 4.01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운동장, 건물, 교실, 화장실 등)은 깨끗하게 유지보수 되고 있다'는 3.56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13] 학교만족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학교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잘 길러준다	3.89	1.044
2. 우리는 학교생활을 재미있어 한다	4.02	1.005
3. 현재 학교에서의 수업이 우리의 학력증진에 도움이 된다	3.95	.970
4. 학교의 시설(체육시설, 건물, 교실 등)은 안전하다	4.01	1.000
5. 학교의 시설(운동장, 건물, 교실, 화장실 등)은 깨끗하게 유지보수 되고 있다	3.56	1.155
척도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894)	3.89	.869

주: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교만족도를 의미함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와 신뢰정도, 소속감과 같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평균 3.64로 '그저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는 '우리 마을은 안전하다'가 3.78, '우리 마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3.69로 조사되었다.

[표 2-14] 지역공동체 의식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주 만나는 편이다	3.58	1.169
2.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 믿고 지내는 편이다	3.53	1.132
3. 우리 마을은 안전하다	3.78	1.064
4. 우리 마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3.69	1.086
척도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882)	3.64	.957

주: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의미함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5개 문항으로 된 척도를 사용하여 물어본 결과가 <표 2-1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문항에 대한 평균이 5.12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문항도 5점 이상으로 나타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5] 삶의 만족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5.01	1.616
2. 나의 삶의 조건들은 매우 훌륭하다	5.21	1.513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5.47	1.516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5.24	1.548
5.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4.67	1.887
척도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907)	5.12	1.382

주: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삶의 만족도를 의미함

자신의 강점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 중 자원활용과 사회적지지 및 교류의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강점 수준을 조사한 결과가 <표 2-16>이다. 대부분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4점 이상으로 학생들이 '약간 그렇다' 이상의 답변을 했다. 5개 문항의 평균점수도 4.05점(SD=.768, 100점 만점기준으로 81점에 해당)으로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원활용에 대한 문항인 '나는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물적, 인적, 심리적)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3.93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2-16] 자신의 강점(자원관련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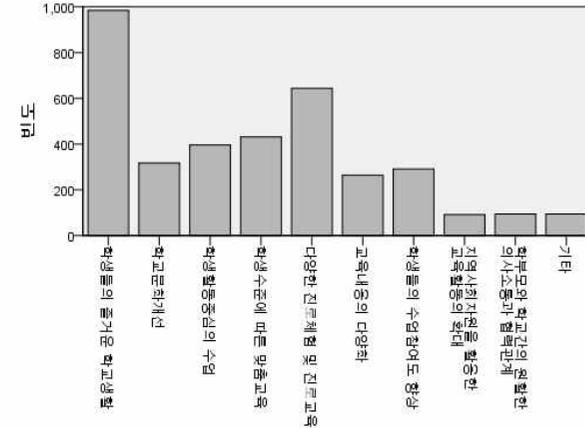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가면 도움을 구할 수 있을지 잘 안다	4.04	.927
2.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4.08	.919
3. 나에게는 학교공부나 진로활동 외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활동(취미, 종교, 친목생활 등)이 있다	4.19	.935
4. 나는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물적, 인적, 심리적)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3.93	.918
5.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잘 얻는다	4.02	.917
척도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890)	4.05	.768

주: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강점 중 자원의 접근과 활용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 3가지를 선택하는 복수응답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1,236명 중 984명(79.6%)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이 '다양한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644명, 52.1%), '학생수준에 따른 맞춤교육'(431명, 34.9%), '학생활동중심의 수업'(396명, 3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것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확대'로 7.4%였다. <그림 1>은 이러한 결과를 막대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2-17]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 (복수응답: n=1,236)

학교생활에 중요한 것	빈도(명)	비율(%)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	984	79.6
학교문화개선	317	25.6
학생활동중심의 수업	396	32.0
학생수준에 따른 맞춤교육	431	34.9
다양한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644	52.1
교육내용의 다양화	264	21.4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향상	291	23.5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확대	92	7.4
학부모와 학교(교사)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관계	94	7.6
기타	94	7.6
합계	3,607	291.8



[그림 2-1]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

2) 평균비교분석 결과

본 분석은 학생들의 응답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조사에서는 현재 학교교육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파악하였다면, 평균비교 분석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나뉜 집단들의 비교를 통해 집단 간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결과는 여러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도출되는 주제들은 추후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 학년별 분석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학생들의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2-18>과 같다. 수업활성화 정도에 대해 초등학생이 평균 4.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중학생이 3.75, 고등학생 3.45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통해 각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사이에 수업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업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에서도 초등학생이 평균 4.41, 중학생 3.86, 고등학생 3.60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학년별 수업 및 수업 외 활동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수업활성화	초등학생(a)	469	4.32	.672	137.606***	a≠b*** b≠c*** c≠a***
	중학생(b)	516	3.75	.773		
	고등학생(c)	256	3.45	.750		
	합계	1241	3.90	.808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초등학생(a)	469	4.41	.674	119.602***	a≠b*** b≠c*** c≠a***
	중학생(b)	515	3.86	.793		
	고등학생(c)	255	3.60	.732		
	합계	1239	4.01	.805		

*p<0.05, **p<0.01, ***p<0.001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지도와 학교 전반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이 4.3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중학생이 3.74, 고등학생 3.4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생활지도와 학교만족도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통해 각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사이에 학교 생활지도와 학교만족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9] 학년별 생활지도와 학교만족도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생활지도	초등학생(a)	469	4.34	.714	128.516***	a≠b*** b≠c*** c≠a***
	중학생(b)	515	3.74	.822		
	고등학생(c)	255	3.44	.821		
	합계	1239	3.90	.860		
학교만족도	초등학생(a)	469	4.33	.742	126.338***	a≠b*** b≠c*** c≠a***
	중학생(b)	515	3.69	.841		
	고등학생(c)	255	3.47	.784		
	합계	1239	3.89	.869		

*p<0.05, **p<0.01, ***p<0.001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학생들이 지역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도, 강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역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 강점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통해 각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사이에 지역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도, 강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0] 학년별 지역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 강점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지역공동체 의식	초등학생(a)	469	4.04	.867	86.390***	a≠b*** b≠c*** c≠a***
	중학생(b)	515	3.48	.934		
	고등학생(c)	255	3.20	.865		
	합계	1239	3.64	.955		
삶의 만족도	초등학생(a)	468	5.69	1.240	87.788***	a≠b*** b≠c*** c≠a***
	중학생(b)	510	4.93	1.341		
	고등학생(c)	254	4.42	1.290		
	합계	1232	5.12	1.381		
강점	초등학생(a)	462	4.36	.662	78.86***	a≠b*** b≠c*** c≠a***
	중학생(b)	508	3.93	.772		
	고등학생(c)	253	3.71	.720		
	합계	1223	4.05	.766		

(2) 경제상황별 분석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2-21>에 제시되어 있다. 수업활성화 정도에 대해 경제상황을 '하'라고 인식한 집단의 평균은 3.59로 가장 낮았고, 그 뒤를 이어 경제상황을 '중'이라고 인식한 집단이 3.79, 경제상황을 '상'으로 인식한 집단이 4.17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통해 각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경제상황 '하'와 '중'인 집단, 경제상황 '중'과 '상'인 집단, 경제상황 '상'과 '하'인 집단 간에 수업 활성화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업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에서도 경제상황 '하'인 집단이 평균 3.67, '중'이 3.89, '상'이 4.30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 경제상황별 수업 및 수업 외 활동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수업활성화	경제상황 하(a)	120	3.59	.732	40.515***	a≠b* b≠c*** c≠a*
	경제상황 중(b)	707	3.79	.786		
	경제상황 상(c)	391	4.17	.775		
	합계	1218	3.89	.802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경제상황 하(a)	118	3.67	.845	46.523***	a≠b* b≠c*** c≠a***
	경제상황 중(b)	706	3.89	.777		
	경제상황 상(c)	392	4.30	.757		
	합계	1216	4.01	.806		

*p<0.05, **p<0.01, ***p<0.001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생활지도와 학교 전반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상황 '하'가 3.5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중'이 3.78, '상'이 4.21로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 생활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만족도의 경우도 경제상황 '하'가 3.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중'이 3.77, '상'이 4.23으로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만족도도 높아졌다.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통해 각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도 이 세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22] 경제상황별 생활지도와 학교만족도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생활지도 만족도	경제상황 하(a)	118	3.52	.889	47.492***	a≠b** b≠c*** c≠a***
	경제상황 중(b)	706	3.78	.844		
	경제상황 상(c)	392	4.21	.781		
	합계	1216	3.90	.860		
학교만족도	경제상황 하(a)	118	3.40	.861	57.895***	a≠b*** b≠c*** c≠a***
	경제상황 중(b)	706	3.77	.835		
	경제상황 상(c)	392	4.23	.796		
	합계	1216	3.88	.865		

*p<0.05, **p<0.01, ***p<0.001

학생들이 지역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도, 강점수준이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가 <표 2-24>에 제시되어 있다. <표 2-24>와 같이 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지역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 강점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통해 각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도 세 집단 간에 지역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도, 강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3] 경제상황별 지역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 강점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지역공동체 의식	경제상황 하(a)	118	3.13	.916	74.664***	a≠b*** b≠c*** c≠a***
	경제상황 중(b)	707	3.48	.900		
	경제상황 상(c)	391	4.07	.905		
	합계	1216	3.63	.956		
삶의 만족도	경제상황 하(a)	120	4.20	1.463	82.680***	a≠b*** b≠c*** c≠a***
	경제상황 중(b)	705	4.91	1.321		
	경제상황 상(c)	392	5.74	1.209		
	합계	1217	5.11	1.386		
강점	경제상황 하(a)	119	3.63	1.463	81.418***	a≠b*** b≠c*** c≠a***
	경제상황 중(b)	701	3.91	1.321		
	경제상황 상(c)	389	4.41	1.209		
	합계	1209	4.05	1.386		

*p<0.05, **p<0.01, ***p<0.001

제2절 학부모

1) 기초분석 결과

(1)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자 840명(86.7%), 남자 129명(13.3%)로 여자가 월등히 많았다.

[표 2-24] 성별에 따른 학부모수

성별	빈도(명)	비율(%)
남자	129	13.3
여자	840	86.7
합계	969	100.0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에서 44세가 448명(46.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45세에서 49세가 302명(31.1%)로, 전체의 77.3%가 40대 응답자였다.

[표 2-25] 학부모 평균연령과 연령별 학부모수

연령	빈도(명)	비율(%)
40세 미만	132	13.6
40~44세	448	46.2
45~49세	302	31.1
50세 이상	88	9.1
합계 (평균: 43.81세, SD: 4.474)	970	100

현재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학부모의 학생의 90.1%가 동작구에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26]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	빈도(명)	비율(%)
동작구	874	90.1
동작구 외	96	9.9
합계	970	100

현 거주지에서 얼마동안 살았는지 물어본 결과,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74.2%였으며,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학부모도 50.1%임을 알 수 있다.

[표 2-27]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거주기간	빈도(명)	비율(%)
1년 미만	49	5.1
1년~3년 미만	94	9.7
3년~5년 미만	106	11.0
5년~10년 미만	233	24.1
10년 이상	483	50.1
합계	965	100

자녀의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382명(40.38%), 중,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389명(41.0%),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178명(18.7%)였다.

[표 2-28] 자녀의 학년

교육과정	학년	빈도(명)	비율(%)
초등	초등학교 4학년	202	21.3
	초등학교 5학년	92	9.7
	초등학교 6학년	88	9.3
	소계	(382)	(40.3)
중등	중학교 1학년	215	22.7
	중학교 2학년	139	14.6
	중학교 3학년	35	3.7
	소계	(389)	(41.0)
고등	고등학교 1학년	99	10.4
	고등학교 2학년	78	8.2
	고등학교 3학년	1	0.1
	소계	(178)	(18.8)
	합계	949	100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성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0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를 1~4점은 못함, 5~7점은 중간, 8점 이상은 잘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29]이다. 전체 가운데 133명(14.0%)의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1~4점, 즉 '중간'이하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학부모는 자녀의 성적을 '중간'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29] 자녀의 학업성적

자녀의 학업성적	빈도(명)	비율(%)
못함	133	14.0
중간	407	42.7
잘함	413	43.3
합계 (평균: 6.73, SD:2.057)	953	100

주: 10점척도로 1~4점은 하, 5~7점은 중, 8점 이상은 상으로 처리함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지 10점척도(1점은 하, 10점은 상)로 설문한 결과 668명(70.2%)의 학부모가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149명(15.7%)의 학부모는 '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경제상황을 '중'이하라고 응답한 학부모도 134명(14.1%)이 있었다.

[표 2-30]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경제상황	빈도(명)	비율(%)
하	134	14.1
중	668	70.2
상	149	15.7
합계 (평균: 5.83, SD: 1.675)	951	100

주: 10점척도로 1~4점은 하, 5~7점은 중, 8점 이상은 상으로 처리함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한 결과 맞벌이 부부가 전체 54.6%로 절반을 차지했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외벌이의 경우는 44.6%였다.

[표 2-31] 가정에서 경제활동 하는 사람

경제활동하는 사람	빈도(명)	비율(%)
본인	119	12.5
배우자	306	32.1
본인과 배우자	521	54.6
없음	8	0.8
합계	954	100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수업 외 활동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가 <표 2-3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문항에 대한 평균점수가 3.89점으로 자녀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정도에 대해 '약간 그렇다'에 인접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학교는 축제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의 문항이 3.92,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고려한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된다'는 문항이 3.89으로 높은 반면, '우리 학교는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의 점수는 3.73점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표 2-32] 자녀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정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자녀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진다	3.87	.824
2. 자녀 학교는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고려한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된다	3.89	.912
3. 자녀 학교는 축제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	3.92	.885
4. 자녀 학교는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3.73	.896
5. 자녀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수학여행, 체험활동, 캠프)이 잘 이루어진다	4.02	.860
척도전체(신뢰도=Cronbach's alpha=.890)	3.89	.711

주 :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의미함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생활지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물어본 결과, 전체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이 3.93으로 '약간 그렇다'에 근접하여 응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항별로는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과 왕따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가 4.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우리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생활지도를 한다'가 3.99였다. '우리 학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와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상담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진다'도 각각 3.86, 3.87로 나타났다.

[표 2-33] 자녀학교 생활지도 만족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자녀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생활지도를 한다	3.99	.882
2. 자녀 학교에서는 학생상담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진다	3.87	.903
3. 자녀 학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3.86	.862
4. 자녀 학교는 학생들에게 문제상황이 생겼을 때 학생과 소통하며 해결하려고 한다	3.91	.898
5. 자녀 학교는 학교폭력과 왕따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	4.01	.867
척도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869)	3.93	.758

주: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교생활지도 만족도를 의미함

자녀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3.94로 '약간 그렇다'에 가깝게 응답하고 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자녀는 학교생활을 재미있어 한다'가 4.09로 가장 높았고, '학교의 시설(체육시설, 건물, 교실 등)은 안전하다'가 4.0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학교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잘 길러준다'는 3.79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34] 자녀학교에 대한 만족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학교는 자녀에게 필요한 능력을 잘 길러준다	3.79	.866
2. 우리 자녀는 학교생활을 재미있어 한다	4.09	.877
3. 현재 학교에서의 수업이 자녀의 학력증진에 도움이 된다	3.92	.895
4. 학교의 시설(체육시설, 건물, 교실 등)은 안전하다	4.00	.888
5. 학교의 시설(운동장, 건물, 교실, 화장실 등)은 깨끗하게 유지보수되고 있다	3.92	.966
척도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875)	3.94	.735

주: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교만족도를 의미함

지난 1년간 자녀학교에 방문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2.4번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244명(25.6%)였다. 전체의 76.8%의 학부모가 3번 이하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35] 1년간 자녀학교 방문횟수

방문횟수	빈도(명)	비율(%)
없음	244	25.6
1번	177	18.6
2번	184	19.3
3번	127	13.3
4번 이상	221	23.2
합계 (평균: 2.4번, SD: 3.531)	953	100

자녀학교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에게 방문이유를 물어보는 복수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698명 중 393명(56.3%)의 학부모가 학부모 상담주간에, 347명(49.7%)의 학부모가 '학교행사참여'를 선택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절반정도의 학부모가 학부모 상담주간과 학교행사로 인해 학교에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학부모교육'(180명, 25.8%), '학부모단체활동'(177명, 25.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것은 '필요시 교사와의 자녀상담을 위해서'로 13.9%였다.

[표 2-36] 자녀학교 방문이유 (복수응답: n=698)

방문이유	빈도(명)	비율(%)
학부모 상담주간에 교사와의 자녀상담을 위해	393	56.3
필요시 교사와의 자녀상담을 위해 (성적, 진로, 징계, 생활지도)	97	13.9
학부모단체활동	177	25.4
학부모교육	180	25.8
학교행사참여	347	49.7
기타	84	12.0
합계	1278	183.1

학부모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와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전체의 58.1%로 과반수를 넘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4(7.7%)에 불과했다.

[표 2-37]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정도

방문횟수	빈도(명)	비율(%)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04	29.1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203	29.0
참여하는 편이다	239	34.1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4	7.7
합계	700	100

학부모 단체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중 어떤 활동에 참여했는지를 묻는 복수응답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394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15명(54.6%)이 녹색어머니회에 참여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이 '학부모회'(127명, 32.3%), '급식모니터'(94명, 23.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로 26명(6.6%)이었다.

[표 2-38]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내용(복수응답: n=394)

자녀학교방문목적	빈도(명)	비율(%)
녹색어머니회	215	54.6
급식모니터	94	23.9
학부모회	127	32.2
학교운영위원회	26	6.6
명예교사	43	10.9
도서관사서도우미	39	9.9
기타	59	15.0
합계	603	153.0

학부모단체 활동화를 위한 필요한 일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 내실있고 의미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을 선택한 학부모가 366명(45.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학부모총회나 회의를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하는 것'을 선택한 학부모가 105명(13.1%), '학부모 단체활동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96명(12.0%)였다.

[표 2-39] 학부모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

학부모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	빈도(명)	비율(%)
학부모에 대한 정기적 교육	77	9.6
지역내 학부모단체 간 소통을 위해 지역모임을 하는 것	69	8.6
학부모단체의 민주적 운영	40	5.0
학부모단체활동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96	12.0
학부모총회나 회의를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하는 것	105	13.1
도서관 사서도우미	22	2.8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 내실있고 의미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	366	45.8
기타	24	3.0
합계	799	100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45.4%(431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학부모도 38.5%나 되었고, 16.1%(153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2-40]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학교교육 발전에 도움되는지 여부

도움여부	빈도(명)	비율(%)
도움이 된다	431	45.4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3	16.1
잘 모르겠다	366	38.5
합계	950	100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가운데 학교교육에서 학부모 참여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2-41>과 같다.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교사와의 자녀상담'으로 응답자 전체의 51.7%(165명)이 선택하여 교사와의 소통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한 항목은 '학부모단체활동'으로 22.3%(71명)이었다.

[표 2-41] 학교교육에서 학부모 참여가 필요한 영역

참여영역	빈도(명)	비율(%)
교사와의 자녀상담	165	51.7
학부모단체활동	71	22.3
학부모교육	47	14.7
학교행사참여	29	9.1
기타	7	2.2
합계	319	100

동작구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질문한 결과, 54.1%에 이르는 503명의 학부모가 '보통이다'에 응답하였다.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28.1%였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와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은 17.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2] 동작구 교육에 대한 만족도

참여영역	빈도(명)	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5	2.7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40	15.1
보통이다	503	54.1
약간 만족한다	206	22.2
매우 만족한다	55	5.9
합계 (평균: 3.13, SD: .836)	929	100

자녀의 교육문제로 이사를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2%인 364명이 이사를 고려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3] 교육문제로 인한 이사 고려 유무

고려여부	빈도(명)	비율(%)
고려해본 적 있다	364	39.2
고려해본 적 없다	565	60.8
합계	929	100

[표 2-44] 이사를 고려한 구체적 이유

이유	빈도(명)	비율(%)
학교 교육수준이 낮아서	61	18.9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아서	84	26.1
인지도 있는 학원이 없어서	29	9.0
교육정보가 부족해서	38	11.8
지역환경이 좋지 않아서	55	17.1
기타	55	17.1
합계	322	100

학부모에게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와 신뢰정도, 소속감과 같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조사한 결과, 평균 3.39점으로 나타나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 의식이 '그저 그렇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마을은 안전하다'가 3.56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주 만나는 편이다'는 3.29점, '우리 마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3.33점으로 다소 낮았다.

[표 2-45] 지역공동체 의식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주 만나는 편이다	3.29	1.086
2.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 믿고 지내는 편이다	3.39	.974
3. 우리 마을은 안전하다	3.56	.907
4. 우리 마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3.33	.852
척도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806)	3.39	.767

주: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의미함

학부모에게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정도를 설문한 결과, '거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의 비율이 46.4%였고, '잘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의 비율은 11.1%에 그쳤다. 평균이 2.55점으로 '거의 모른다'와 '보통이다'사이에 위치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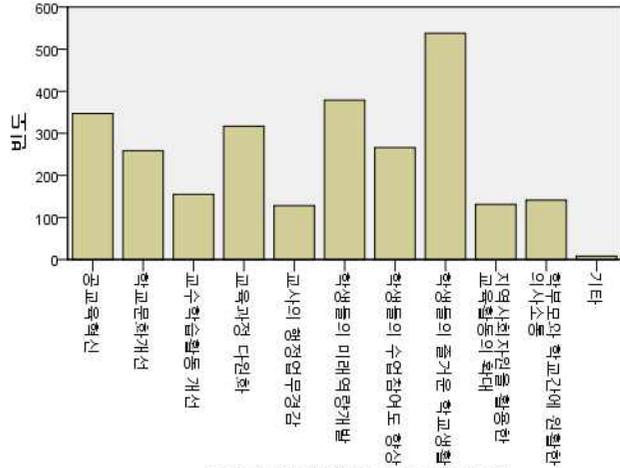
[표 2-46]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정도

이해정도	빈도(명)	비율(%)
전혀 모른다	116	12.2
거의 모른다	326	34.2
보통이다	404	42.4
잘 알고 있다	82	8.6
매우 잘 알고 있다	24	2.5
합계 (평균: 2.55, SD: .903)	952	100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 3가지를 선택하는 복수응답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938명 중 538명(57.4%)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학생들의 미래역량개발'(379명, 40.4%), '공교육혁신(347명, 37%), '교육과정 다원화'(317명, 33.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것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13.6%였고,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확대'가 그 다음으로 14%였다. <그림 2>는 이 결과를 막대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2-47]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복수응답: n=938)

내용	빈도(명)	비율(%)
공교육혁신	347	37.0
학교문화 개선	259	27.6
교수학습활동 개선	155	16.5
교육과정 다원화	317	33.8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128	13.6
학생들의 미래역량 개발	379	40.4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향상	266	28.4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	538	57.4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확대	131	14.0
학부모와 학교간에 원활한 의사소통	141	15.0
기타	8	0.9
합계	2669	284.5



[그림 2-2]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

자녀가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5%가 이용한다를, 52.5%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2-48] 자녀의 방과후학교 이용여부

이용여부	빈도(명)	비율(%)
이용한다	456	47.5
이용하지 않는다	504	52.5
합계	960	100

자녀가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부모에게 자녀가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학원시간과 맞지 않아서'로 183명인 40.8%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은 '자녀가 다니기 싫어해서'로 112명(24.9%)이 선택했다.

[표 2-49]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하지 않는 이유	빈도(명)	비율(%)
원하는 강좌가 없어서	85	18.9
학원시간과 맞지 않아서	183	40.8
교육적인 효과가 없어서	40	8.9
자녀가 다니기 싫어해서	112	24.9
기타	29	6.5
합계	449	100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강사의 전문성 강화'로 347명(41.9%)이 가장 많이 선택했고,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222명(26.8%)로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되었다.

[표 2-50]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필요한 것	빈도(명)	비율(%)
강사의 전문성 강화	347	41.9
강좌시간의 확대(주3~4회)	118	14.3
프로그램의 다양화	222	26.8
비용을 낮추는것	108	13.0
기타	33	4.0
합계	828	100

2) 평균비교분석 결과

본 분석은 학부모들의 응답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조사에서는 현재 학교교육과 동작구 교육 전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파악하였다면, 평균비교 분석은 자녀의 학년별, 경제적 수준 등에 의해 나뉜 집단들의 비교를 통해 집단 간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 분석의 결과는 여러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도출되는 주제들은 추후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 자녀학년별 분석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학부모들이 자녀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정도와 생활지도 및 학교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2-51>과 같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정도의 경우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집단이 평균 3.9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3.85,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3.74로 나타났다.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통해 각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생 자녀를 둔 집단, 초등학교와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학교 생활지도와 학교만족도에 대한 인식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보다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학생 자녀를 둔 집단, 초등학교와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1] 자녀학년별 창의적 체험활동과 생활지도 및 학교만족도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a)	382	3.98	.725	7.552***	a≠b* c≠a***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b)	389	3.85	.701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c)	177	3.74	.688		
	합계	948	3.88	.713		
생활지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a)	380	4.07	.736	15.307***	a≠b*** c≠a***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b)	383	3.87	.776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c)	178	3.71	.723		
	합계	941	3.92	.762		
학교만족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a)	377	4.24	.651	59.339***	a≠b*** c≠a***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b)	382	3.75	.744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c)	177	3.71	.661		
	합계	936	3.94	.734		

*p<0.05, **p<0.01, ***p<0.001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성적, 자녀학교방문횟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보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보다 자녀의 학교성적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학교 방문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52] 자녀학년별 학교만족도, 자녀성적, 학교방문 횟수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학교만족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a)	377	4.24	.651	59.339***	a≠b*** c≠a***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b)	382	3.75	.744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c)	177	3.71	.661		
	합계	936	3.94	.734		
자녀의 학업성적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a)	379	7.61	1.730	81.859***	a≠b*** b≠c*** c≠a***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b)	384	6.43	2.018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c)	177	5.51	1.991		
	합계	940	6.73	2.059		
자녀학교 방문횟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a)	381	3.44	3.878	32.570***	a≠b*** b≠c* c≠a***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b)	379	1.96	3.599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c)	174	1.11	1.535		
	합계	934	2.40	3.555		

*p<0.05, **p<0.01, ***p<0.001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학부모들이 동작구 교육에 대한 만족도, 지역공동체 의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동작구 교육만족도의 경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집단의 평균이 3.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 3.21이었다. 반면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만족도는 3.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통계적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집단과 중학생 자녀를 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역공동체 의식의 경우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53] 자녀학년별 동작구 교육만족도와 지역공동체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동작구교육 만족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a)	365	3.21	.859	5.754**	a≠b**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b)	373	3.02	.835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c)	171	3.22	.785		
	합계	909	3.13	.840		
지역공동체 의식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a)	377	3.45	.791	2.401	-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b)	382	3.35	.717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c)	178	3.32	.812		
	합계	937	3.39	.767		

(2) 경제상황별 분석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자녀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정도, 생활지도 및 학교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2-54>에 제시되어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경제상황을 '중'이라고 인식한 집단의 평균이 3.84로 가장 낮은 반면 경제상황을 '상'으로 인식한 집단은 4.09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학교의 생활지도와 학교만족도와 관련해서는 경제상황을 '하'라고 인식한 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상'이라고 인식한 집단이 가장 높았다.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통해 각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경제상황 '하'와 '상'인 집단, 경제상황 '중'과 '상'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생활지도와 학교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4] 경제상황별 창의적 체험활동과 생활지도 및 학교만족도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경제상황 하(a)	133	3.91	.703	7.952***	b≠c***
	경제상황 중(b)	667	3.84	.724		
	경제상황 상(c)	149	4.09	.622		
	합계	949	3.89	.711		
생활지도 만족도	경제상황 하(a)	132	3.78	.727	7.428***	a≠c*** b≠c*
	경제상황 중(b)	662	3.92	.757		
	경제상황 상(c)	148	4.12	.767		
	합계	942	3.93	.760		
학교만족도	경제상황 하(a)	131	3.44	3.801	7.598***	a≠c*** b≠c*
	경제상황 중(b)	660	3.64	3.936		
	경제상황 상(c)	145	4.12	4.137		
	합계	936	3.88	3.948		

*p<0.05, **p<0.01, ***p<0.001

자녀의 학교성적, 자녀학교방문횟수에 대해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상황을 '상'이라고 응답한 학부모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경제상황을 '하'라고 응답한 학부모집단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즉,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녀의 성적도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학교 방문횟수의 경우, 경제상황을 '중'이라고 인식한 집단과 '상'이라고 인식한 집단 간에 평균 2.51번, 2.55번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는 반면, 경제상황을 '하'라고 응답한 학부모집단의 경우 평균 1.67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통해 각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경제상황 '하'와 '중'인 집단 간에 학교방문횟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5] 경제상황별 자녀의 학업성적과 자녀학교 방문횟수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자녀의 학업성적	경제상황 하(a)	129	5.53	2.325	42.630***	a≠b*** b≠c*** a≠c***
	경제상황 중(b)	658	6.75	1.908		
	경제상황 상(c)	147	7.72	1.903		
	합계	934	6.741	2.056		
자녀학교 방문횟수	경제상황 하(a)	130	1.67	2.070	3.226*	a≠b*
	경제상황 중(b)	658	2.51	3.924		
	경제상황 상(c)	1476	2.55	2.608		
	합계	934	2.40	3.546		

*p<0.05, **p<0.01, ***p<0.001

경제수준에 따라 동작구 교육에 대한 만족도, 지역공동체 의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경제상황을 '상'이라고 응답한 학부모집단이 경제상황을 '하'라고 응답한 학부모집단에 비해 동작구 교육만족도와 지역공동체 의식 모두 높았고, 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6] 경제상황별 동작구 교육만족도와 지역공동체 의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동작구교육 만족도	경제상황 하(a)	129	3.01	.879	3.301*	a≠c*
	경제상황 중(b)	640	3.12	.819		
	경제상황 상(c)	142	3.26	.874		
	합계	911	3.13	.838		
지역공동체 의식	경제상황 하(a)	129	3.09	.835	13.460***	a≠b*** a≠c***
	경제상황 중(b)	658	3.41	.752		
	경제상황 상(c)	148	3.55	.723		
	합계	935	3.39	.769		

*p<0.05, **p<0.01, ***p<0.001

제3절 교사

1) 기초분석 결과

(1)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자 305명(74.0%), 남자 107명(26.0%)로 여자가 많았다.

[표 2-57] 성별에 따른 교사수

성별	빈도(명)	비율(%)
남자	107	26.0
여자	305	74.0
합계	412	100

설문에 응답한 교사의 평균연령은 44.5세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169명(40.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40대가 117명(28.1%), 30대가 99명(23.7%) 순이었다.

[표 2-58] 교사 연령

연령	빈도(명)	비율(%)
20대	32	7.7
30대	99	23.7
40대	117	28.1
50세 이상	169	40.5
합계 (평균: 44.51세, SD: 9.845)	417	100

설문에 응답한 교사의 교직경력력을 조사한 결과, <표 2-59>와 같이 다양한 경력대의 교사가 골고루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59] 교직 경력

기간	빈도(명)	비율(%)
10년미만	101	25.1
10~20년미만	100	24.8
20~30년미만	110	24.8
30년이상	92	22.8
합계	403	100

설문에 응답한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를 급별로 나누어보면, 초등학교 교사가 170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중학교 교사 152명(37.1%), 고등학교 교사 79명(19.3%) 순이었다.

[표 2-60] 재직 중인 학교급

학교급	빈도(명)	비율(%)
초등학교	179	43.7
중학교	152	37.1
고등학교	79	19.3
합계	410	100

직위별로 살펴보면 평교사가 279명(6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61] 직위

직위	빈도(명)	비율(%)
평교사	279	68.2
부장교사	92	22.5
교장, 교감	38	9.3
합계	409	100

재직 중인 학교의 수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가 <표 2-6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문항에 대한 평균점수가 4.28로 '약간 그렇다'보다 높게 응답해 대체로 수업이 잘 활성화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학교의 수업분위기는 활기차다'와 '우리 학교는 학생활동중심의 수업이 많다'가 4.3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62] 수업 활성화 정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우리 학교의 수업분위기는 활기차다	4.38	.796
2. 우리 학교는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많다	4.38	.765
3.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이 많다	4.19	.834
4.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19	.921
척도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901)	4.28	.729

주: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업 활성화를 의미함

수업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도 평균 4.45점으로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사이에 응답해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수학여행, 체험활동, 캠프)이 잘 이루어진다'가 4.6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우리 학교는 축제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가 4.53,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고려한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 된다'는 4.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3]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정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우리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진다	4.32	.787
2.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고려한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된다	4.45	.760
3. 우리 학교는 축제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	4.53	.649
4. 우리 학교는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4.33	.776
5. 우리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수학여행, 체험활동, 캠프)이 잘 이루어진다	4.61	.617
척도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843)	4.45	.564

주: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의미함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물어본 결과, 전체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이 4.65로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사이에 위치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별로는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과 왕따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가 4.76로 가장 높았고,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상담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진다'가 4.55로 가장 낮았다.

[표 2-64] 학교생활지도 만족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우리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생활지도를 한다	4.67	.569
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상담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진다	4.55	.641
3. 우리 학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4.62	.620
4.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문제상황이 생겼을 때 학생과 소통하며 해결하려고 한다	4.69	.535
5.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과 왕따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	4.76	.494
척도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875)	4.65	.469

주: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교생활지도 만족도를 의미함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47로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사이에 위치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재미있어 한다'와 '현재 학교에서의 수업이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도움이 된다'가 4.51로 가장 높고, '학교의 시설(운동장, 건물, 교실, 화장실 등)은 깨끗하게 유지보수되고 있다'는 4.39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65] 학교만족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학교는 학생에게 필요한 능력을 잘 길러준다	4.45	.689
2.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재미있어 한다	4.51	.676
3. 현재 학교에서의 수업이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도움이 된다	4.51	.682
4. 학교의 시설(체육시설, 건물, 교실 등)은 안전하다	4.48	.743
5. 학교의 시설(운동장, 건물, 교실, 화장실 등)은 깨끗하게 유지보수되고 있다	4.39	.807
척도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870)	4.47	.584

주: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교만족도를 의미함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정도를 설문한 결과, '잘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의 비율이 35%를 차지했고, '거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의 비율은 23.3%로 나타났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정도의 평균값은 3.19로 '보통이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6]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정도

이해정도	빈도(명)	비율(%)
전혀 모른다	17	4.1
거의 모른다	80	19.2
보통이다	174	41.7
잘 알고 있다	98	23.5
매우 잘 알고 있다	48	11.5
합계 (평균: 3.19, SD: 1.008)	417	100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 3가지를 선택하는 복수응답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413명 중 276명(66.8%)이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153명, 37%), '학교문화개선'(137명, 33.2%), '상담,복지,진로에 관한 전문인력 지원'(129명, 3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것은 '학부모와 학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8.2%였다.

[표 2-67]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복수응답: n=413)

내용	빈도(명)	비율(%)
공교육혁신	115	27.8
학교문화개선	137	33.2
교수학습활동개선	78	18.9
교육과정 다원화	39	9.4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인력지원	276	66.8
학생들의 미래역량개발	73	17.7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향상	71	17.2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	153	37.0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확대	89	21.5
학부모와 학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	34	8.2
상담,복지,진로에 관한 전문인력 지원	129	31.2
기타	7	1.7
합계	1201	290.8

2) 평균비교분석 결과

본 분석은 교사들의 응답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의 재직하고 있는 학교 급별, 경력에 따라 기초분석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본 분석의 결과는 여러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도출되는 주제들은 추후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 학교급별 분석

재직하는 학교의 급별로 교사들의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2-68>과 같다.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이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보다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2-68] 학교 급별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수업활성화	초등학교 교사(a)	179	4.67	.477	75.532***	a≠b*** b≠c*** c≠a***
	중학교 교사(b)	152	4.16	.675		
	고등학교 교사(c)	79	3.66	.794		
	합계	410	4.28	.729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초등학교 교사(a)	178	4.72	.384	45.697***	a≠b*** a≠c***
	중학교 교사(b)	152	4.29	.575		
	고등학교 교사(c)	79	4.15	.627		
	합계	409	4.45	.566		

*p<0.05, **p<0.01, ***p<0.001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교사들의 생활지도 및 학교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순이었다.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통해 각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등학교

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69] 학교 급별 생활지도와 학교만족도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생활지도	초등학교 교사(a)	179	4.86	.289	48.928***	a≠b*** b≠c*** c≠a***
	중학교 교사(b)	152	4.59	.461		
	고등학교 교사(c)	79	4.31	.560		
	합계	410	4.65	.466		
학교만족도	초등학교 교사(a)	179	4.81	.348	95.774***	a≠b*** b≠c*** c≠a***
	중학교 교사(b)	152	4.33	.493		
	고등학교 교사(c)	79	3.96	.685		
	합계	410	4.47	.584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정도가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교사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70] 학교 급별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혁신교육지 구 사업에 대한 이해	초등학교 교사(a)	179	3.39	1.029	7.231***	a≠b*** a≠c***
	중학교 교사(b)	151	3.10	.960		
	고등학교 교사(c)	78	2.91	.995		
	합계	408	3.19	1.013		

(2) 경력별 분석

교사의 경력별로 교사들의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71] 교사경력별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수업활성화	10년 미만(a)	101	4.29	.713	1.478	-
	20년 미만(b)	100	4.38	.674		
	30년 미만(c)	110	4.17	.768		
	30년 이상(d)	92	4.29	.757		
	합계	403	4.28	.729		
창의적 체험활동	10년 미만(a)	100	4.44	.606	1.159	-
	20년 미만(b)	100	4.48	.457		
	30년 미만(c)	110	4.38	.613		
	30년 이상(d)	92	4.52	.576		
	합계	402	4.45	.568		

*p<0.05, **p<0.01, ***p<0.001

교사의 경력별로 생활지도 및 학교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생활지도의 경우,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교만족도의 경우, 경력 10년 미만의 집단이 30년 이상의 집단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72] 교사경력별 생활지도와 학교만족도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생활지도	10년 미만(a)	101	4.63	.507	2.083	-
	20년 미만(b)	100	4.65	.442		
	30년 미만(c)	110	4.60	.497		
	30년 이상(d)	92	4.75	.402		
	합계	403	4.65	.468		
학교만족도	10년 미만(a)	101	4.63	.507	3.077*	a≠d*
	20년 미만(b)	100	4.65	.442		
	30년 미만(c)	110	4.60	.497		
	30년 이상(d)	92	4.75	.402		
	합계	403	4.65	.468		

*p<0.05, **p<0.01, ***p<0.001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정도가 교사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경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응답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73] 교사경력별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	10년 미만(a)	100	2.87	.981	10.775***	a≠c*** a≠d*** b≠d***
	20년 미만(b)	100	3.01	.999		
	30년 미만(c)	110	3.33	.891		
	30년 이상(d)	92	3.59	1.059		
	합계	402	3.19	1.016		

*p<0.05, **p<0.01, ***p<0.001

III

질적연구 결과

Ⅲ. 질적연구 결과

1. 연구 내용

동작구 내에서 대표성을 가진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유관기관가 등의 6개 그룹을 중심으로 동작구의 교육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렴하여 향후 동작구의 교육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둔다. 특히 본 연구는 다양한 주체들이 동작구에 교육에 어떠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교육발전을 위해 어떠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향후 장기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 혁신지구 사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학생, 학부모, 학교관계자인 행정가 및 교사, 지역사회 기관장 및 실무자 등 6개 그룹으로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4명이 참여하였다. 학생의 경우는 설문에 참여한 해당학교 해당 반 교사의 추천 및 지역의 추천으로 초등학생 3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으로 총 6명이다. 학부모는 교사 추천으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다양한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학교관계자는 행정가인 교감, 교장과 초등, 중등, 고등 각각 1명씩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지역사회기관은 동작구청,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고 동작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 교육, 마을사업 관련 지역사회기관장 및 실무자 총 6명이 참여하였다.

[표 3-1] 학생, 학부모 참여자

참여자	나이	급	해당동	동작구거주기간	비고
학생 1	12	초등	상도동	4	
학생 2	11	초등	사당동	11	
학생 3	11	초등	대방동	10	
학생 4	14	중등	사당동	14	
학생 5	12	중등	상도동	4	
학생 6	19	고등	흑석동	19	
학부모 1	45	-	사당동	10	
학부모 2	44	-	상도동	10	
학부모 3	48	-	사당동	20	
학부모 4	41	-	사당동	11	
학부모 5	43	-	상도동	4	
학부모 6	46	-	대방동	10	

[표 3-2] 학교, 지역사회 참여자

참여자	나이	급	근무경력	동작구 근무기간	비고
행정가 1	55	중등	34년	8년 6개월	
행정가 2	59	중등	36년	4년 6개월	
행정가 3	58	고등	31년	1년 6개월	
교사 1	45	초등	20년	4년	
교사 2	51	중등	25년	16년	
교사 3	53	고등	28년	-	동작구 40년 거주
지역사회 1	42	-	15년	4년	
지역사회 2	41	-	18년	5개월	
지역사회 3	38	-	11년	6년	
지역사회 4	42	-	8년	7년	
지역사회 5	42	-	2년	2년	
지역사회 6	47	-	3년	2년	동작구 23년 거주

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동작구청, 동작교육청 및 설문조사 해당학교 담임교사의 추천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2016년 1월 7일부터 18일까지 6개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 인터뷰 방식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추가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개별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3) 분석방법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한 후 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연구자가 여러 번 읽고 줄 단위로 코딩을 하면서 범주화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주제를 도출해 냈다.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작구를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의 전문가에게 확인받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재 작성하였다.

3. 연구결과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즉 학생, 학부모, 교사, 행정가, 지역사회기관 관계자와의 면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적 자료 분석한 결과,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범주로는 교육환경이 발전된 동작구를 위해 먼저 변화되어야 할 부분, 두 번째 범주는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 세 번째로는 장기적 대안 마련이다.

제1절 변화 내용

1) 학교 차원

(1) 시설 환경

동작구 지역은 신도시 중심도시가 아닌 전형적인 도심지역이다. 그 중 몇몇 학교는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할 정도의 역사 깊은 학교들이 있다. 그렇다보니 학교의 외형적인 시설적인 면에서 낙후된 모습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교육청 및 학교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재건축 및 시설 지원이 되지 못해 체육관, 특별실 등에 대한 공사 요구가 많았다. 더불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기자재의 부실로 인해 수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자재는 수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진단검사 받으면 C에서 머물러서 D로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그리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강당이 그게 50년쯤 다 되잖아요. 비가 새서 여러 번 공사했죠. 비가 방송시설은 먹어 들어가서 다 바꾸죠. 뭐 이 위에서 테이프들은 다 붙어 있는데 종치면 다 떨어지죠. 너무 놀란 게 복도 벽에 오색 천연한 곰팡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흡수 되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해가지고 빨간 거 까만 거 하얀 거 퍼린 거 막 계단 짝 올라가면서 그래서 곰팡이 유해균이나 이런 게 아이들한테..... (행정가 2)

지금 밖에 나가면 바깥 컴퓨터 너무 좋아요. 제 컴퓨터도 그 이상 되는데 학교 컴퓨터는 너무 후졌어요. 이게. 그런 여건. 우리 애들 집에 좋은 컴퓨터 쓰고 있다가 학교 와서 후진 컴퓨터 쓰면 그게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교육청에도 돈이 없어. 그러면 할 때는 구청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놓고 내 집보다 학교가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을 때 학교 가고 싶고 뭔가 가고 싶어지는데 학교에는 후진 컴퓨터로 뭐를 하자고 뭐 하나 띄우려면 2~3분씩 걸리고 뭐가 새롭지도 않고 선생님들 수업도 마찬가지로 딱딱딱 돌아가면서 막 속속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다못해 빔도 흐려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창문 다 닫아놓고 이런 여건에서는. (교사 2)

(2) 수업의 변화

● 즐거운 수업방법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은 누구나 다 즐겁게 다니면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중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시간이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보다는 재미있는 흥미 및 활동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였다.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의 방식 및 분위기, 내용 등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해왔던 방식이 아닌 학생중심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 학생 중심의 분위기 조성 등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만큼 학습의 욕구가 많다는 반영한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학교에서의 수업방식, 방법, 운영 등에 대한 변화는 교육 과정에 영향을 주고 이는 교육의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라 변화는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거꾸로 수업 바뀌가지고, 재밌게 아이들 하고 그 흥미를 빨리 찾아 줘야 되니까 진로 교육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어, 교육 과정 정상화 되면 굳이~ 00 초등학교로 간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가 1)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이들 활동 중심으로 좀 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거 좀 키워 주고, 그다음에 수업 방식을 좀 바꾸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해 줘야지. 맨날~ 이거 하다 보니까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수업 방식의 혁신인데. 요와 같은 것들도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혁신교육지구고, 지금 혁신 아니어도 해야 되요 이게. 앞으로 (행정가 1)

수업은 재밌긴 한데 애들이 별로 수업이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요. 발표해도 애들이 호응을 잘 안해 줘서 심심해요.. 청각 자료를 좀 더 활용하고 그리고 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참여도 안하고 되게 시끄러워요. 차라리 좀 선생님이 좀 더 혼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하려고 좀 더 재밌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학생을 재밌게 가르쳐주는 그런거면 좋겠어요. (학생 1)

수업을 할 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하면 애들이 좋아하고 집중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학생 3)

수박겉핥기 식으로 그냥 건드리고만 오는 거예요. 그럼 애들도 흥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고. (학부모 3)

● 자유학기제 대비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는데, 이 제도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수업 운영하는 것으로 토론 및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결국 수업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만의 노력으로 진행하기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및 지역사회가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자유학기제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철저히 준비된다면 학생들의 수업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내가 내 소질과 적성이 뭔지 내 흥미가 뭔지 파악하고, 거기로 빨리! 적응하는 것이 지름길이거든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 주고, 어 또 그와 같은 우리가 활성화되면 학교에서 실력 있는 수업을 이제,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자유 학기제가 수업 방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계획, 조사하고 검토하고 계획해서 내가 배워나가는 거다. 내가. 그래서 선택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목공이다, 아니면 뭐 요리다, 또는 뮤지컬이다. 그러면 뮤지컬, 뮤지컬 프로그램을 내가 그냥 그걸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 프로그램에 가서 내가 대본을 어떻게 쓰고, 내가 배역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계획해서 실행을 해야 선택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행정가 1)

내년부터는 중학교는 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요. 교사들이 갖고 있는 자기 전공만 확실하지 다른 것들은 잘 모르는데 환경 같은 걸 교육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런 팀들을 불러서 하면 좋는데 그것을 홍보할 때도 없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교사 2)

선택 프로그램이 뭐 아이들이 다양한 내용을 접하라고 수업을 일주일마다 두 시간 정도씩 이렇게 하는데 선택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받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다양한 좀 그러한 맞춤형으로 갈 수 있게 되게 해주면 좋겠고 선택 프로그램은 특히나 학생들이 조금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 (행정가 2)

(3) 다양한 프로그램(체험활동, 동아리, 자치활동 등)

교과수업 외에 다양한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자치활동을 통해 즐겁게 학교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과 후 활동, 진로체험, 문화체험, 다양한 예체능 동아리 및 학습동아리 등의 활동은 학생들의 끼와 꿈을 펼치는 데 필요한 경험과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정을 스스로 토론하고 논의 할 수 있도록 기회 즉 자치권을 주어 학교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선택의 폭도 넓혀주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원하고 있음과 동시에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 학교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학관련 동아리는 엄청 많은데, 우리관련 동아리는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00고가 과학중점이다 보니 예-체능 쪽은 많이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공부 말고도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다양한 활동이 많아지면, 경험을 다양하게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학생 6)

그냥 뭐 방과후 분야가 다양해지면 좋겠어요. 방과후 신청서 보면 저희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방과후 그거 신청서 뒤쪽에 한 장으로만 정리할 수 있게끔 적어요.. (학생 4)

주변에 흔한 직업들이나 다른 직업들은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이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면, 장래 희망이 디자이너인 아이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학생 3)

요즘에 주로 고등학교 방향이 옛날에는 방과 후 수업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또 하나의 흐름이 학생 공부동아리, 자율동아리죠. 그 공부동아리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가 3)

(4) 취약계층 학생지원

학교 내의 다양한 학생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 교사들도 경제적 어려움,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모두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해결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는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교육 및 복지정책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오히려 그 외의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대한 지원망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학교 급별 즉 초등, 중등, 고등 별로 차별성과 발달적 특성을 고려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를 위한 전문 인력지원 및 프로그램지원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사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생활도 마찬가지이지만 학교에서는 생활지도 된다고 봐야 돼요.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마다 약간 분위기는 조금 다르겠지만 정계 위주로 가느냐, 선도위주로 가느냐 이런 쪽이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가정을 보고 애가 왜 이런 사고를 칠 수 밖에 없는가를

보고 애는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몇 시간 받고 뭐를 해라 이런 식의 정계를 내리는 편인데 저는 아침 운동을 해요. 무조건 모아놓고 아침에 축구를 하고 여자애들은 편 볼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와 있는 애들은 사고를 쳐도 그 안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아침에 늦게 오는 애들은 점심 먹으러 오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애들도 가끔씩 축구하러 아침에 일찍 와요. 7시 반에. 학교가 내가 가면 뭐 할 수 있어. 뭔가 즐거운 일이 있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 2)

학교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그 학생들이 많아져서 한 반에 거의 한 두 명씩은 문제가 되는 가정이나 학생들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서도 딱히 지도는 안 해요. 저 학년 때도 보이고, 그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더 도드라지고 하는데 그럼 중학교나 고등학교 돼서 탈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교 때 잡아주면 이게 좀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한테 기대기에는 학교에서는 전혀, 전혀 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크게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 2)

더 많아서 그 쪽 지원도 소홀히 하면 안 돼. 대안 교실. 고등학교는 특히 공부 전혀 안하는 애들이 많아. 공부 펼쳐 놓으면 전혀 귀가 안 들리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걸 분리해놔야 하는데. (행정가 3)

제 조금 욕심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체험이나 교육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은 정부에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고, 체험활동으로, 밖으로 도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보니까 질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좋은 데로 많이 다니고. 근데 예산도 너무 그쪽으로만 많이 쓰다보니까 그것에 약간 벗어난 사각지대의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또 혜택을 못 받는 면이 있는 것 같고. (학부모 5)

항상 배제가 되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통합 환경이 필요하다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 학생들이던 비장애 학생들이던 학교라는 곳이 배움의 터전이지 않아요. 근데 그 배움의 터전이라는 것이 공부만 있을게 아니거든요. 학력이나 대학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함께 생활하면서 어우러지는, 소통하는, 누군가를 존중하는, 다양성. 이런걸. 배움의 기본이 돼야 참 배움이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내 갈길만 가고, 내 안위만 보존하면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라던지 학교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 학생이 어우러져서 같이 생활해야 하는.. (지역사회 6)

(5) 행정가 및 교사의 변화

교육과정 및 수업의 주도는 결국 행정가와 교사의 몫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수업의

변화, 수업개선의 연구,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 모두 변화로 요구되고 있다. 강요가 아닌 교사 스스로 변화의 주제 자가 되기 위해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끼리의 동아리 형식의 모임을 통해 수업 개선을 위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느끼고 있었다. 이는 교사의 변화는 학교의 변화로 이어지고 결국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 당사자인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경청하는 수평적 관계,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변화의 시작임을 시사하고 있다.

당사자잖아요. 학생들이 당사자죠. 당사자를 배제하고 어떻게 발전의 모습들이 나오니까. 학생들에게 물어봐야 해요. 학생들과 의논해야 해요. (중간생략)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는거죠. 내가 낸 의견이 반영이 돼? 우리 학급 안에서 반영이 돼?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죠. 선생님에 의해서, 어쨌든 학교 안에서 권위적인 관계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위에 계신 분들이 수평적인 생각을 가질 때 학교가 변화되면, 똑같이 일대일 의견을 동일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지역사회 6)

어떤 연대 모임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노력을 해 주면, 거꾸로 수업 동작 모임 뭐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장소라던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교사 동아리? 뭐 이런 걸 해 주면... 어, 나는 이렇게 봤어 김 쌤은 어떻게 봤어, 한 달에 한 번씩 정책 토론 한 번 씩 할 수 있지 않을까? 소규모로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행정가 1)

학교가 이제 어쨌든 학교가 변해야 되잖아요. 학교가 변하는 게 1번이 교사의 변화라고 해요 교사. 교사를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뭐 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될 게 없죠. 어쨌든 시설 돈 뭐 다 그걸 모든 걸 떠나서 1번이 저의 교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지원 사업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뭐 조금씩 하는 것들이 뭐냐면 교사 연구동아리처럼. (행정가 3)

요즘에 교육청에서도 이제 강의식 수업 말고 뭐 그 이야기하는 질문 있는 교실 어쨌든 학생들과 소통을 하며 수업을 해라 수업방법 개선이죠. 수업방법개선.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수업방법개선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죠. (행정가 2)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고나서 아이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학교를 운영하시는지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보여 주기식의 행사가 많이 죽었고, 정말 아이들의 꿈과 끼를 좀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소외계층 뿐 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아리가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마인드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지만, 일 년 밖에 경험하지 못한 게 아쉬운.. 많은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학부모 4)

(6) 운영 지원(인력지원, 행정의 간소화)

학교의 변화는 혁신학교, 특별학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게 위해서는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는 교사들이 행정업무가 많아 수업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및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혁신교육사업이 또한 교사의 추가 업무의 하나로 작용할 경우 교사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까 염려되고 이후 지쳐 소진될까 우려함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건 일반 학교도 있고 혁신도 있지만, 좋은 점도 일반을 응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혁신이나 일반이나, 제가 애가 넷이라서 두 군데를 다 다녀봤는데, 일반학교 선생님들은 행정업무가 너무 많고, 저희 혁신은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양쪽 다 선생님에 대한 지원이.. (학부모 2)

선생님들이 많이 바쁘시다는 거.. 행정적인 서류가 일 년이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간소화시켜주고, 선생님들이 수업의 질적으로 조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대충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보면 다 바빠서 하고 싶은 것들의 역할을 다 발휘를 못하시는 것 같은.. 그걸 좀 간소화가 안 되 나박요. (학부모 5)

그런 업무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 선생님이나 그렇게 해서 업무 분배를 해서, 행정업무는 안보지만, 선생님들이 혁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11시까지 회의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도 못 가시고, 그러니까 애들은 좋지만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들니까. (학부모 2)

2) 지역사회차원

(1)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 연계

교육발전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동작구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의 교류 즉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에 강조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방과 후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예·체능활동 등 학생들의 삶 전반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지역교육의 변화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역

연계방식과 방법, 구축의 형태는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적 물적 그런 교류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동작 교육... 동작구가 혁신지구가 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 학부모들한테도 좋고, 학교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좋을 것이다. (행정가 1)

동네 어른들이 힘이 돼서 마을지킴이다 해서 하면은 그 동네에 분명히 우범지대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곳들이 항상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잘 못하지 않았나? 할 수 있는. 너 담배피면 안 돼. 이런 것. 그런 조치가 되겠는가 아니면 뭔가 어머니 세대같이 활성화 되어서 거기를 돌아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동작구에 가면 거기 지역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아이가 반듯하게 자란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공부, 학구적으로다가 막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학교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역이 어려워져서 지역과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교육정책 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어요. “너 담배 피지 마.” 징계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밖에 나가서 연계가 같이 돼야 되는 건데 교육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 동작구는 그렇게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게 1년, 2년, 3년 누적되다 보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거죠. (교사 2)

마을연계형 방과 후라고 해서 그 중에서 몇 개 우리 학교에 기존에 없는 동아리 활동 위주로 몇 개를 선택해서 지원받고 해서 평가가 엄청 좋았어요. 그 강사들 다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로 섭외된, 구성된 그런 강사들이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있던 교육 단체에서 제공하는 강사들과는. (교사 1)

아침에 와서 애들 선수들 이름이라도 잠깐만 지도해주면 좋은데 제가 축구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애네들이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모르고 있고 누구와 연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근본이. (교사 2)

외부사람이 와서 지원해주고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거 다 하는데 아주 재밌고 좋았어요. 효과도 좋고. 그런 세팅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가 좋은데 우리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의뢰하는 건 쉽지 않아요. 마인드도 그렇지 않으니 그런 사람들은 봉사팀 맺으면 이런 걸로 협조를 하고 있으면 서울시까지 갈 거 뭐 있어요. 동작에서. (행정가 2)

재능기부랑은. 너무 아쉬운 게 다들 엄마들 보면 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다 놓고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활용하면, 애들한테도 좋고 학부모들도 학원비나 그런 부담이 덜 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재능기부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학부모 2)

(2) 지역사회 자원 홍보 및 활용

365일중 학교에서의 수업일수 약 195일을 뺀 나머지 170일 정도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알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찾고 알기에 즉 정보를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였다. 참여자들은 수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지역사회자원을 쉽고 간단하게 알게 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하여 누구나 지역사회자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연계된 정보 및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큰 과제로 남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가입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으니 함께 알려주면 좋을듯해요. 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생활기록부에 적용하면서.. 하면 좋겠더라고요... (학생 6)

지역에 있는 기관과 시설들은 연결 관계가 너무 잘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왔을 때도 저는 쉽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단지 네트워크 되어져 있는 걸. 학교가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되어져 있어요. 잘 돼있는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걸 잘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 1)

만나서 정보교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니까. 어떤 단체가 무엇인지 알아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 2)

(3) 콘텐츠 관리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수많은 자원들에 대한 검증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동작구 관내의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9개교가 동시 다발적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많은 혼선이 야기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주체가 연계하면서 경험과 부딪힘으로 지역사회 기관을 알아가는 정도였다면, 다양한 콘텐츠의 자원들이 어떤 기관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력풀의 전문성 정도, 학교와의 연계성, 예산 등등을 좀 더 관리하여 보다 인정받고 신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인증하고 인증하면서 프로그램하고 가격 이런 거를 적절하게 어떤 때 보면 예산을 엄청 나갔는데 하는 거 보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잘 하는 분들도 있고 잘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표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텃밭사업이다 그러면 예산은 엄청 들어갔는데 몇 백 들어갔는데 하는 거 보면 별로 뭐 몇 개 갖다 놓고 마는 것 같아. (행정가 2)

우리 동작구가 마을활동을 많이 하는 활동가들이 많거든요. 마을 도서관도 있고, 에너지 재생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활동하는 곳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역에 있는 이 아이들은 일부 빼놓고는 그 곳에 참여해서 그런 활동중심의 교육을 받는 건 좀 눈치가 보여야 하는.. 그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하기가 좀 꺼려지는.. 일단 가입이라는 자체가, 가입을 했으면 활동을 좀 해야 하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학부모 5)

(4)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그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학생, 여학생의 특성, 초등·중등·고등 급별 발달적 특성이 다르듯, 2015년 동작구에서 실시되었던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이런 학생들의 눈높이를 잘 반영한 프로젝트로 손꼽고 있었다. 이는 보여주기 식의 실적이 아닌 학생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학생들이 욕구에 기반 한 것으로 학생들이 주체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게 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며 그에 따른 다양한 결과물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지금처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거예요. 수요자 그러니까 학생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거죠. (행정가 1)

저는 이제 보면 큰 애 같은 경우는 여자애 치고 활동적인걸. 되게 좋아하는데, 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대요. 애들이 너무 공부만 하니까.. 애 개 인적인 차도 있겠지만, 몸으로 한두 시간씩 풀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공부하고, 그러는걸. 좋아하는데.. 너무 그런 게 없다보니까 스포츠 활동을 접목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학부모 1)

아무거나 프로젝트처럼 학교 아이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따가지고 사업 하는 걸 선생님들이 했었거든요. 그건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너무 좀 기준을 완벽하게 하지 말고 조금 다양하게 많이 오픈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행정가 2)

지금 아무거나 프로젝트 너무 잘 되어 있죠. 근데 실제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결과물이 더 좋게 나왔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애들이 더 재밌게 잘 나왔거든요. 그 아무거나 프로젝트 방향성은 그럼 초등학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겠죠.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맛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우리 속제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사업계획서 쓰라고 하면 못써요. 그럼 누가 계속 붙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쉽게,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걸. 눈높이를 낮춰서 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진학과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아무거나 프로젝트지만 또 다른 동아리 활동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 1)

제2절 선행요건

발전된 교육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 인식의 전환

교육발전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전환에서부터의 출발임을 다시금 인식시켜 주었다. 자치구부터 지역의 소중함,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사업에 임하는 자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존중하는 태도 등은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자치구청, 지역주민 모두의 변화되어야 할 강조하고 있었다.

인식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고.. 다 강남 강남 좋다 하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따라 자녀들을 강남권으로 보내야 할 것 같고, 원래 살던 지역에서 열심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학생 6)

저는 안에서 더 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약간의 공무원적인, 탁상행정에 대한 걸 저희가 되게 많이 느껴서, 그 분들도 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학부모 5)

시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인식이 안 바뀌면 끝인 것 같아요.. 한 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 혁신이 그 계기를 만드는.. (지역사회 2)

학생이나 학교만 변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학부모도 변화의 중심 핵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당당하게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거지 하지 마시고, 같이 맞닥뜨려서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좀.. 가정 내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략) 현장에 나와서 직접 장애학생들과 아니면 만나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다. 앞서서만.. 물론 행정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생들과 직접.. 어려운 일일까요? (지역사회 6)

2) 구심체(소통구조 및 창구 마련)

교육발전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그 시초가 되어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소통되어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열어 나누면 조금씩 바뀌게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 연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에 구심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저희가 할 테니까, 했으니까 들어오세요. 라는 것 보다는, 처음에 낼 당시부터 기획 단계부터 좀 많은 소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역사회 1)

그런 준비를 하려면 이제 학교도... 생각을 오픈을 하고 또는, 예. 자치단체도 생각을 같이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가 1)

대개 인식개선이니 환경여건 개선이니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보다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동작구, 동작 교육청하면 서울시 교육청 하는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데 그래도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건 똑같아요. 생각이 바뀌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함께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해야 되고 그런 함께하는 구심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행정가 1)

같이 하자. 여차피 우리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 교감, 교감이라든가 교사 똑같이 동일한 선상으로 말하면 학부모. 뭐 이런 것들도 모여서 조금씩, 조금씩 확산시켜 나가면 뭐 되지 않을까 전 그런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트워크화가 우선 중요하다. (행정가 1)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상황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따로 또 같이 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같이도 모이고 따로도 모이고 또 급별로도 모여서 거기에 맞게끔 주제에 맞게끔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사 3)

자주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하고도 만나고 교감선생님하고도 만나고 선생님들하고도 만나고 학부모들하고도 만나다 보면. (행정가 3)

그런 부분에 학교 관계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날 만큼은 외부사람이 오면 저희가 그 분이 누구라고 체크를 안 할 것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이런 자리에선 우리가 터놓고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월례회이나 그런 게 생길 때는 외부 사람을 써도 되지 않을까. 엄마들은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내지 않을까.. (학부모 2)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고, 좋은 방향으로 성과를 내려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민·관·학이. 구에서 알고 있는 걸 학교가 모른다던가, 학교가 알고 있는 걸 학부모가 모른다던가, 이런 시스템이 먼저 구조가 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학부모 5)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주셨으면 뭐라도 써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조차 소통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뭐 저희가 결과적으로 저희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어도 얘기 안했으니까 서로 할 말이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1년이 가는 거죠. (지역사회 4)

자원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해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연결해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창구가 현재 있으면... (지역사회 1)

그걸 책임지고 중간에서 센터라던지 기관에서 매칭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인력이라던지 그런 중간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중략) 중간적인 어떤 기관에서 매칭하고 신청하고, 홍보하고 그것들이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이걸 정기적으로 봐줄만한 그런 기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 복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육복지 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훈련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까지를 책임지고 계획을 짜거든요. 그건 마을을 위해서도, 학교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지역사회 3)

3) 다양성 인정과 존중(따로 또 같이)

학교는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 지자체는 지역 전반에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각각의 독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었다. 즉 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학사일정에 맞춘 사업 기획을 통해 충분히 각각의 영역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만의 사업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이 필요하듯 이것의 공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교과, 교과 교육에 관계된 거라든가 또는 마을과 함께 할 수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만이 할 수 있는 거, 학교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행정가 1)

교육과정이 사실은 빠듯하거든요. 빠듯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통합을 세워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작년에 진행됐던 그 학교에서 들어보니까 약간 급박하게 조율되는 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런 수업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보면 수업시간이 한 시간이 됐건 열 시간이 됐건 미리 조율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사 1)

저런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잡혀있으면 그게 학기 초에 3월 시작하기 전에 1,2월 달에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에다 뿌려주면 그걸 얼마든지 그 과목에서 나 같은 경우에 내가 필요한 과목이 있다고 하면 학기 초에 이 때 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잡아놓고 하면 얼마든지 넣어서 할 수 있고 섭의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들어오면 막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데, 중간에 해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리고 홍보도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공문이나 하나만 팔랑 날라 보내줬을 때 내가 공문을 읽고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딱 중간에 이런 게 날라 오면 그냥 버리거든요. (교사 2)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학교가 들어가는 격. 그리고 그게 이제 작년에 교수인증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동작구가 진행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그런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학교가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해주는가에 대한 초점보다는 동작구에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교가 가다보니까 아마 거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음 지원을 100% 하지 않아서 돈이 남았을거예요. (행정가 2)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방학 때 프로그램도 없어요. 예산이 충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적절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동작구 혁신교육 작년에 했을 때도 장애학생 프로그램 없었어요. (지역사회 6)

제3절 대안마련

장기적으로 동작구의 교육발전이 지속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 자생력 있는 사업 구상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다 지속적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 및 우려의 모습을 보였다. 자칫 예산 중단 이후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면서 조심스러워했다. 예산 중단 이후의 장기적인 대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즉 지혜를 모아야 함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분명히 돈이 얼마 있고 그렇다면 이걸 지속성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단기 사업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필요도 있지 않을까. 단기사업이면 돈을 확 투자해서 활성화시켜도 되는데 이게 장기로 간다면 돈이 없을 때도 우리 분명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조금 아이디어를 살짝 돌리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돈들을 다른 곳에 값지게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사 3)

저희 이제 달라져야 하는 건 현재 혁신을 하면서 혁신 사업이 사라지고 나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그걸 찾고 그걸 먼저 기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산 투입이 안 되더라도 생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예산 투입이 안돼서 사라지는 것들 현재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가더라고요 재밌는 것들. 한 번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되어있는 것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두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예산이 지나가도 그 사업은 계속 남는 거잖아요. (지역사회 1)

2) 교육 생태환경 조성

학생들을 중심에 둔 생태환경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순환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과제인 것이다.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은 교육의 재료이며 체험의 장이 된다. 그 곳이 바로 지역사회다.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단지 생활 속에 국한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다시 순환구조를 만들어 촘촘하게 교육 생태 환경의 그물망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수많은 인적자원, 재능기부, 공간, 교육콘텐츠, 기회, 신뢰, 시간 등은 그물망 안에 놓여 질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동작구 관내 3개 대학, 기업들,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은 자원이상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우리 동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학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있어서 동기유발이라든가 성취의욕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깨워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 지역 인프라를 통해서 해야 줄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자치, 자치단체나 자치구나 교육청이 함께해야. 보통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행정가 1)

학교는 어떻게 링크를 해야 될지 모르고 외부에서는 학교에서 문을 안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은 문을 열고 싶는데 어떻게 링크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모르구요. 그리고 그 기관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예산적인 측면까지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예산이 없어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의 이런 지역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사 3)

자원들이 학교로 연결될 수 있게끔, 지역에서의 발굴, 연계성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배운다고 하면 양성된 마을 아이들이 자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은 가능하지만, 후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될 경우,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진로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되어있는 그물망이라고 하면 여기로 가나 저기로 가나 걸려요. 타이틀 안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게 혁신 사업이니까 여기 이것만 해, 이걸 아니잖아요. 열려져야 하는 건데. 틀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 1)

올해는 숭실대, 총신대, 중앙대, 업무 협약을 맺어볼까..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발적 의지가 있는 사람이 모이면 되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지역사회 2)

3) 동작구만의 특색(제자리 교육)

미래 인재상과 동작구의 교육발전 방향은 같은 맥락 안에서 방향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즉 사회성과 창의성을 길러 내는 것이며 결국 인성교육을 통해 배려,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미래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혁신교육이 아닌 교육이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통합교육, 제자리 교육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동작구 교육의 핵심이며 특색으로 가져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혁신교육이라는 뭔가 큰 변화보다는 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미래 시대의 인재는 두 가지가, 다른 건 다 되는 거죠. 다른 건, 로봇이라든가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두 가지 사회성과 창의성인데 사회성과 창의성을 길러 줘야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인성교육이거든요. 미래 시대 인성교육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인성교육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배려, 존중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속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예. 것이 인성교육이 바탕이 된 미래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성이 좋고,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그걸 마율이 같이 하자.(중략) 사실 그런 것들은 그게 뭐 혁신이 아니라 제자리 교육을 찾는 거죠.(행정가 1)

통합은 너무 중요하다. 짧은 안목으로 보면, 내 아이가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두가 함께 하는 통합 환경 내에서 어떤 아이도 다 행복해져요. 그 시간을 좀 줘라.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그들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주셔라. 그 기다림을 갖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역할들. 그 다음에 교장, 교감 선생님이 바뀌어야 한다. 더하기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6)

IV

결론 및 제언

IV. 결론 및 제언

1. 양적연구 결론

본 연구는 동작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로, 동작구 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동작구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는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고, 동작구 관내 22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1,242명과 949명의 학부모, 410명의 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에 대한 조사결과,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약 89%가 동작구 내 거주하고 있었으며, 5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71.7%였다. 본인의 학업성적에 대해 83.3%가 중간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90.2%의 학생이 '중'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수업 외 활동, 생활지도,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 문항평균이 약 3.9점(5점 척도)으로 나와, '약간 그렇다'에 가깝게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공동체의식부분에서는 평균 3.64점으로 '그저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 사이에 있었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평균 5.12점(7점 척도)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접근과 활용에 관한 강점에 대해 설문한 결과도 평균 4점 정도로 '약간 그렇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 3가지를 선택하는 복수응답에 대한 분석결과, 약 80%의 학생들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이 중요하다고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52%의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학년과 경제상황별로 집단 간 평균비교분석을 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상황을 좋지 않게 인식할수록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성적, 삶의 만족도, 지역공동체의식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에 대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답에 참여한 학부모의 평균연령은 약 44세로, 77.3%의 학부모가 40대였다. 응답자의 자녀학년을 살펴본 결과, 약 40%가 초등학교 자녀를, 41%가 중학생 자녀를, 19%가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응답자의 약 90%가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중 50%가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해서는 86%가 중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86%가 '중'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정에서의 경제활동은 맞벌이가 54.6%로 외벌이보다 좀 더 많았다.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서 평균 4

점에 가까운 응답을 보여 부정적인 인식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학교교육의 참여경험과 관련해서는 1년간 자녀학교방문을 전혀 하지 않은 집단이 25.6%였고, 1~3번 이하라고 응답한 집단이 51%였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학부모상담주간에 교사와의 자녀상담과 학교행사 참여 때문이었다. 학부모 단체활동에 대한 참여경험을 조사한 결과, 약 42%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참여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54.6%)와 학부모회(32.2%)였다. 학부모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에 대한 질문에서는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 내실있고 의미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을 선택한 학부모가 45.8%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45.4%, '잘 모르겠다'가 38.5%,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6.1%로 나타났다. 동작구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한지 질문한 결과 54.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17.9%만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교육 때문에 이사를 고려한 집단은 39%였고, 이사를 고려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아서', '학교 교육수준이 낮아서' 등이었다. 학부모의 지역공동체의식은 평균 3.39점으로 '그저 그렇다'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정도를 물어본 결과 45.4%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 3가지를 묻는 복수응답에서는 전체의 57.4%가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40.4%가 '학생들의 미래역량 개발'을, 37%가 '공교육혁신'을 선택했다. 자녀가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는 비율은 47.5%로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 조금 더 많았고,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학원시간과 맞지 않아서(40.8%)', '자녀가 다니기 싫어해서(24.9%)', '원하는 강좌가 없어서(18.9%)'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 42%의 학부모가 '강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학부모집단을 자녀의 학년과 경제상황별로 나누어 평균비교분석을 한 결과, 자녀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자녀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자녀의 학업성적도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의 경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4.5세였고, 74%가 여성이었으며, 초등학교 교사가 43.7%, 중학교 교사가 37.1%, 고등학교 교사 19.3%였다. 재직 중인 학교의 수업과 수업 외 활동, 생활지도,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평균 4.5점의 점수를 보여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사이에 위치해 학생과 학부모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정도를 설문한 결과, '잘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의 비율이 35%를 차지했고, '거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의 비율은 23.3%로 나타났다.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3가지를 선택하는 복수응답에서는 전체 413명 중 276명(66.8%)이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선택했고, 그 다음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153명, 37%), '학교문화개선'(137명, 33.2%), '상당, 복지, 진로에 관한 전문인력 지원'(129명, 3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을 학교 급별, 경력별로 집단을 나누어 평균을 비교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보다 자신의 학

교교육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이해정도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교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보다 점수가 높았고, 경력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기존에 심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과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향후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동작구의 교육발전을 위해 숙고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교 교육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지도, 학교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 학교교육 전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강점에서도 초등학생에 비해 현격하게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단지 연령대별 특성에 의한 차이인지 차후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다하더라도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의 수업, 수업 외 활동 등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에 대한 주도적인 모습과 주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것을 학교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적극 지지해줘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경험은 자신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조사결과와 같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즐거운 학교가 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학생이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집단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클 것이다. 따라서 관심이 필요한 학생에게 세밀한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과 업무환경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아지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은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삶의 중요한 토양이다. 주민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서로 신뢰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른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이 단순 거주지로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된다면 아동에 대한 보살핌을 실천하는 지역사회가 되고 결국 살기좋은 지역사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결

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부모의 교육 참여율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참여가 도움이 된다고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학부모의 교육참여 경험이 적고,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할 기회가 적은데서 오는 결과일 수 있다.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활발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단체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활동시간대를 저녁으로 옮기는 등의 노력으로 통해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46.4%로 절반 가까이되고 있다. 교사의 경우도 23.3%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시작은 당사자들이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동작구의 교육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동작구 교육발전과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사업의 전략을 세워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발견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2. 질적연구 결론

본 연구는 동작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주체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관계자인 행정가 및 교사, 지역사회 기관장 및 실무자 등 6개 그룹으로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4명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교육발전을 위해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지,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향후 장기적인 동작구 교육발전의 대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동작구의 교육발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차원으로 나누어 기대되는 변화가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차원에서 외형적인 시설 즉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뿐만 아니라 기타 특별실 등을 포함한 한 외형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학생의 즐거운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업의 변화, 수업 외의 다양한 체험활동, 동아리 등의 다양한 활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수업시간은 보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활동위주의 수업방식의 개선으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 방식과 분위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도입은 이러한 요구가 절대적으로 반영 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었다. 지나친 집중지원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망을 체계적으로 지원되어 사각지대가 존재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교육 전반의 변화는 결국 교육자의 변화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교육자인 행정가 및 교사가 수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수업개선을 위한 연구, 교육 수요자들의 철저한 욕구 반영 등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자발적인 연구 동아리 및 연구에 필요한 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의 간소화 및 인력지원 등은 교사의 소진을 막을 수 있을 대안이기도 하였다.

지역사회에게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대하는 변화로는 지역사회내의 있는 다양한 인프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매개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져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의 정보를 정확히 학생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구의 모든 학교가 교육으로 연계될 때 각 기관의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관리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모든 움직임의 주체는 학생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역의 주인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개인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함을 다시금 놓치지 않도록 강조하였다. 제시된 변화는 동작구의 교육발전에 학생, 학부모, 교사, 행정가, 지역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내용들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요소로 먼저 교육발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출발임을 인식시켜 주었다. 지역의 자긍심, 소중함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결국 지역주민의 인식변화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소통을 강조하였다. 사업의 시작 즉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반영하며 함께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함을 공감하고 있었다. 결국 만남의 장, 구심체의 역할이 선행되어야 변화의 시작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며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교육이라는 큰 틀 아래 학교,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또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인

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함을 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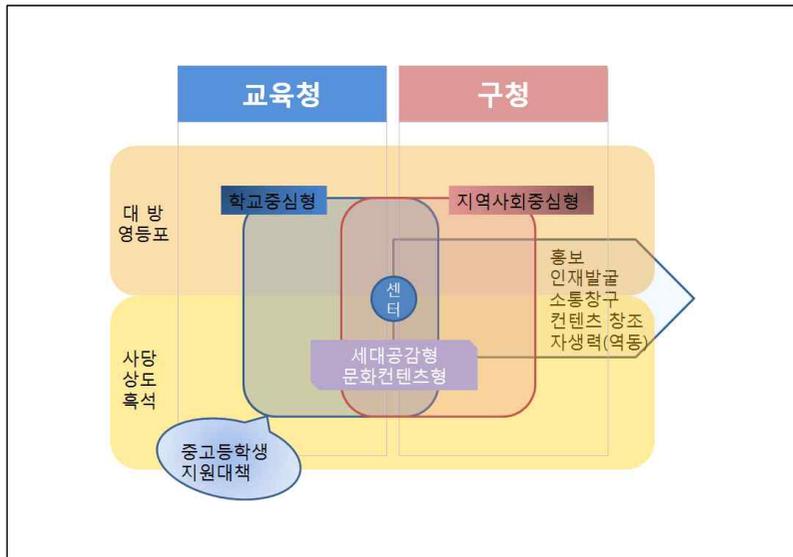
장기적인 교육발전의 대안으로 자생력 있는 사업이 구상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예산 중심으로 추진되는 교육 사업이 아닌 사람중심의 사업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지역사회가 교육 중심의 생태환경으로 조성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 순환하는 그물망 구축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물망 구축은 동작구만의 특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에 보다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서 협력적인 모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제언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동작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4-1>과 같다.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방동, 영등포동을 한 개 지역으로, 상도동, 사당동, 흑석동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단위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데, 첫째, 학교중심형으로 교육과정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중심이 되어 수업 및 수업외의 활동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중심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형으로 콘텐츠형이나 세대공감형, 교육복지센터 설치 등을 포함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동작구만의 다양한 문화, 교육 콘텐츠를 구상하여 특색화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르신 세대와 청소년 세대를 연결시킬 수 있는 멘토 사업 등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통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교육복지센터 설치하여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가정, 지역사회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심체가 시급하다 하겠다.



[그림 4-1]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한 실천적 모델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2014, “2014 혁신교육지구 운영 기본 계획”,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 곽노현, 2015, “혁신교육 내비게이터 곽노현입니다”, 『맘이드림』.
- 김상곤·김윤자·강남훈 외, 2011,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창비』.
- 김성천, 2014,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맘이드림』.
- 박일관, 2015, “혁신학교 2.0 -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으로”, 『에듀니티』.
- 박주희·주수원, 2015, “만들자, 학교협동조합”, 『맘이드림』.
- 박현숙, 2015, “혁신학교 성공모델, 정곡중학교 4년간의 성장기록 - 희망의 학교를 꿈꾸다”, 『해냄』.
- 서용선, 2014, “혁신교육 존 듀이에게 묻다”, 『살림터』.
- 서용선 역, 2014, “우리가 신뢰하는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맘이드림』.
- 원주형성혁신학교연구회, 2015, “내가 경험한 학교혁신 이야기”, 『북랩』.
- 의정부여자중학교, 2015, “수업을 비우다 배움을 채우다”, 『에듀니티』.
- 이부영, 2014, “서울형 혁신학교이야기, 『살림터』.
- 정은균, 2016,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학교혁신과 교육 민주주의에 관한 단상”, 『살림터』.
-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2014, “행복한 혁신학교 만들기”, 『살림터』.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2015,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 『살림터』.
- 한희정, 2015, “혁신학교 효과”, 『맘이드림』.

부록

[학생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은 학생들의 학교나, 동네,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여 보다 좋은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결과는 동작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있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문 내용은 결코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께 보여지는 것이 아니며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연구책임자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교수

이번 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담당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전화 02-820-0508, e-mail: ssworker@ssu.ac.kr

I. 다음은 여러분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① 남자 ② 여자 입니다.

2. 나는 ① 초등학교 4학년 ② 초등학교 5학년 ③ 초등학교 6학년
④ 중학교 1학년 ⑤ 중학교 2학년 ⑥ 중학교 3학년
⑦ 고등학교 1학년 ⑧ 고등학교 2학년 ⑨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3.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서울시 ()구 ()동

4. 현재 동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고 있나요?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③ 3년~5년 ④ 5년~10년 ⑤ 10년 이상

[학부모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동작구청에서는 동작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결과는 향후 동작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의미있게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오직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에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보다 바람직한 동작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11.

연구책임자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교수

이번 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담당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전화 02-820-0508, e-mail: ssworker@ssu.ac.kr

I. 다음은 여러분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만()세
3.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서울시 ()구 ()동
4. 현재 동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고 있나요?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③ 3년~5년 ④ 5년~10년 ⑤ 10년 이상

II. 다음은 전반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1. 자녀 학교 학생자치 및 방과후 학교 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학급회, 학생회)이 잘 이루어 진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학교는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고려한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 학교는 축제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 학교는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 학교는 특별활동(수학여행, 체험활동, 캠프)이 잘 이루어 진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학교 생활지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생활지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학교에서는 학생 상담 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 학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 학교는 학생들에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학생과 소통하며 해결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 학교는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전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자녀에게 필요한 능력을 잘 길러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자녀는 학교 생활을 재미있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학교에서의 수업이 자녀의 학력증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의 시설(체육시설, 건물, 교실 등)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의 시설(운동장, 건물, 교실, 화장실 등)은 깨끗하게 유지보수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학교교육의 참여에 대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1. 학부모님께서 최근 1년간 학교에 몇 번 방문하셨나요?
 ① 0번(4번으로 가세요) ② 1번 ③ 2번 ④ 3번 ⑤ 4번 이상(회)
2. 최근 1년간 어떤 일 때문에 학교에 가셨나요?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표 해주세요.
 ① 자녀상담(성적, 진로, 징계, 생활지도)
 ② 학부모 단체활동
 ③ 학부모 교육
 ④ 학교 행사참여
 ⑤ 기타(_____)

3. 자녀의 학교에서 학부모 단체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4번으로 가세요)

- 3-1. 학부모 단체활동에 참여했다면 다음 중 어느 활동에 참여하셨나요?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표 해주세요.
 ① 녹색어머니회
 ② 급식모니터
 ③ 학부모회
 ④ 학교운영위원회
 ⑤ 명예교사
 ⑥ 도서관 사서도우미
 ⑦ 기타(_____)

4. 학부모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① 학부모에 대한 정기적 교육
 ② 지역 내 학부모 단체 간 소통을 위해 지역모임을 하는 것
 ③ 학부모 단체의 민주적 운영
 ④ 학부모 단체활동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⑤ 학부모 총회나 회의를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하는 것
 ⑥ 도서관 사서도우미
 ⑦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 내실있고 의미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
 ⑧ 기타(_____)

IV. 다음은 동작구 교육과 지역사회에 대해 귀하의 경험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1. 동작구 교육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2. 자녀의 교육문제로 동작구에서 이사를 고려해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3번으로 가세요)
- 2-1. 이사를 고려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학교 교육 수준이 낮아서
 ②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아서
 ③ 인지도 있는 학원이 없어서
 ④ 교육정보가 부족해서
 ⑤ 지역환경이 좋지 않아서
 ⑥ 기타(_____)

3. 다음은 사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자주 만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지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동네는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동작구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부모님께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 향후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어떠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한 사항을 3가지 선택해주세요.

- ① 공교육혁신
- ② 학교문화 개선
- ③ 교수-학습활동 개선
- ④ 교육과정 다양화
- ⑤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 ⑥ 학생들의 미래역량 개발
- ⑦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향상
- ⑧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
- ⑨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확대
- ⑩ 학부모와 학교(교사)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관계
- ⑪ 기타 (_____)

VI. 다음은 귀하의 자녀와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설문 안내를 받은 자녀의 학년은 어떻게 되나요?

- ① 초등학교 4학년 ② 초등학교 5학년 ③ 초등학교 6학년
- ④ 중학교 1학년 ⑤ 중학교 2학년 ⑥ 중학교 3학년
- ⑦ 고등학교 1학년 ⑧ 고등학교 2학년 ⑨ 고등학교 3학년

2. 현재 자녀의 학업성적은 어떠한가요?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해주세요.

매우 못함			중간				매우 잘함			
1	2	3	4	5	6	7	8	9	10	

3. 귀 가정의 경제상황은 어떠합니까?

하	중								상
1	2	3	4	5	6	7	8	9	10

4. 귀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본인과 배우자 ④ 없음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동작구청에서는 동작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결과는 향후 동작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의미있게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오직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에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솔직한 응답은 보다 바람직한 동작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11.

연구책임자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교수

이번 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담당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전화 02-820-0508, e-mail: ssworker@ssu.ac.kr

I. 다음은 재직 중인 학교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1. 우리학교 수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의 수업분위기는 활기차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는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학교 학생자치 및 방과후 학교 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학급회, 학생회)이 잘 이루어 진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고려한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는 축제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는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는 특별활동(수학여행, 체험활동, 캠프)이 잘 이루어 진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학교 생활지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생활지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상담 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학생과 소통하며 해결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학교 전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학교는 학생에게 필요한 능력을 잘 길러준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재미있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학교에서의 수업이 학생의 학력증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의 시설(체육시설, 건물, 교실 등)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의 시설(운동장, 건물, 교실, 화장실 등)은 깨끗하게 유지보수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선생님께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 향후 동작구 교육발전을 위해 어떠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한 사항을 3가지 선택해주세요.
① 공교육혁신
② 학교문화 개선
③ 교수-학습활동 개선
④ 교육과정 다양화
⑤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인력지원
⑥ 학생들의 미래역량 개발
⑦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향상
⑧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
⑨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확대
⑩ 학부모와 학교(교사)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관계
⑪ 상담, 복지, 진로에 관한 전문인력지원
⑫ 기타(_____)

III. 다음은 선생님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만 ()세
3. 교직 경력 ()년 ()개월
4. 재직 중인 학교급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5. 직위 ① 평교사 ② 부장교사 ③ 수석교사 ④ 교장, 교감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문참여 학교 담당선생님을 위한
설문지 수거 안내문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동작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문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설문실시 대상

설문지는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 총 3가지입니다.

- 학 생 용: 2개 학급 학생(초등학생의 경우 4~6학년 중에서, 중·고등학생은 상관없음)
- 학부모용: 2개 학급 학부모(학생용 설문을 실시한 2개 학급의 학부모)
- 교 사 용: 20명(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포함)

2. 배포와 수거일

- 설문지 배포: 2015. 12. 18.(금)
- 설문지 수거(학부모용): 2015. 12. 23.(수)
- 설문지 발송: 2014. 12. 24(목) 우체국 착불택배로 보내시면 됩니다.
- 택배발송 자료: 1) 2개 학급 학생의 설문지
2) 2개 학급 학부모의 설문지
3) 교사 20명의 설문지
4) 2개 학급 담임선생님의 문화상품권 수령확인서
- 택배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글로벌브레인홀 313-1호(TEL:02-820-0508)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5. 12.

연구책임자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교수

이번 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담당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전화 02-820-0508, e-mail: ssworker@ssu.ac.kr

설문참여 학급 담임선생님을 위한
설문지 수거 안내문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동작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담임하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께 동봉해드린 설문지를 배포하시고 수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학생용 설문지의 설문시간은 약 10분정도로 예상됩니다. 학부모용 설문지의 경우 학부모님께 문자 등으로 안내해 주셔서 한분도 빠짐없이 다 수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설문을 위해 설문내용에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수거된 설문지는 동봉된 봉투에 넣어 학교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뜻으로 약소하지만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수취확인을 위해 아래 표에 기본정보와 서명 날인하여 설문지와 함께 보내주세요.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5. 12.

연구책임자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교수

이번 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담당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전화 02-820-0508, e-mail: ssworker@ssu.ac.kr

- * 설문지 배포일자: 2015년 12월 18일(금)/ 설문지 수거일자(학부모용): 2015년 12월 23일(수)
- * 학교담당자에게 제출해야 될 자료: 1. 학급전체 학생의 설문지
2. 학급전체 학부모의 설문지
3. 문화상품권 수령확인서

[절취선]

[문화상품권 1만원권 수령확인서]

학교명	학년/반	성명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서명

인터뷰 및 자료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 연구는 [동작구청]과 [송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업무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작구 교육현황에 대한 욕구조사로 향후 동작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연구팀은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진실되고 성실한 태도로 연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터뷰 자료 이용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교수

1. 이 인터뷰는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만듭니다.
2. (1)의 자료는 관련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녹취록을 만들 때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이름, 나이, 소속 등은 모두 가명 및 부호처리 됩니다.
4. 녹음화일과 익명처리된 녹취록은 송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이후 폐기절차 및 과정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5. 연구참여자는 인터뷰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작성일 : 2016년 1월 일

작성자 : (인)